



서울대학교 同窓會報

동창회 지표 ● 참여하는 동창회 ● 노력하는 동창회 ● 영광스런 동창회

發行人 金在淳
編輯人 鄭宗澤
印刷人 金映宰

發行所
서울대학교總同窓會
121-040 서울特別市 麻浦區 桃花洞18-2
☎ 702-2233~5 · FAX: 703-0755

銀行지로番號 7500875
對替口座 010017-31-0621565

제 204호

1976. 4. 13 등록번호(서)라-137호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1995년 3월 1일 월 간

[1]



커버 스토리

조수미 「神이 내린 목소리」

관악춘추

새봄을 맞아 우리는 5천8백76명의 새 회원을 맞아 들였다. 지난 25일 치러진 모교의 제49회 졸업식에서는 3천6백46명의 학사와 1천8백20명의 석사, 그리고 4백10명의 박사가 새로 배출되었다.

우리는 먼저 신입회원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들의 졸업을 축하해 마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축하의 말과 더불어 이 기회에 너 나 할 것 없이 우리 동문 모두의 뼈아픈自省과 새로운 다짐을 당부하고 싶은 것이다.

따지고 보면 지금 이 나라는 우리 서울대 동문에 의하여 움직여지고 있는 셈이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그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번 신입회원까지 합해 꼭 21만의 서울대 동문들이 정부, 국회, 정당, 법조, 재계, 기업체, 학계, 언론

계 할 것 없이 각계각층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지난 군정의 암흑시대에 이 나라의 민주정치가 파행의 길을 걷게 된 것도, 한편 「조국의 근대화」를 추진한 것도, 나아가서는 앞으로 「세계화」가 잘 되고 못되고도, 모두 우리 서울대

신입회원들의 기대와 다짐

에 달려 있다 해도 크게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지난 功過와 榮辱에 대해서 냉엄한 판별과 뼈를 깎는 자기성찰이 함께 있어야 할 줄 안다.

이것은 굳이 過去之事物을 들추어내 平地風波를 일으키려는 것은 아니다. 신입회원을 맞아 서울대인의 이 나라 역사에 미치는 막중한 소명과 견인차적인

책임의식을 보다 判明하게 일깨워 줌으로써 스스로의 굳건한 다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뜻에서이다.

오늘날 우리 문민정부는 군·정치개혁 공직자 재산공개, 금융·부동산 실명제 등 획기적인 작업을 많이 했다. 하지만 당장 6월의 지방선거를 둘러싼 정국안정문제, 민생치안문제, 또 국가경쟁력 강화문제 등 아직은 미진한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 이것들이 모두 우리 서울대인의 몫인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흔히 우리 서울대인은 이른바 優等生的인 엘리트 의식을 자만한 나머지 화합 단결력이 모자라고, 독창적이고 개척자적인 추진력이 희박하다고 自評하기도 한다. 이 苦言을 良藥으로 겸허히 받아 들여 21세기의 견인차로서 서울대인의 소임을 다하는데 모자람이 없도록 하자.

그리고 동문들간의 화합과 단결, 우리의 母胎인 모교에의 기여 또한 소중하고 뜻있는 일이란 것을 느낄 때가 되었다. 동창회의 활성화에도 신입회원의 역할을 기대한다. (根)

만든사람

논설위원: 金榮國, 金哲洙, 孫一根, 崔靑林, 朴應七, 金昌悅, 朴世熙, 李東和, 李炯均, 宋鎮赫, 李年憲, 丘月煥, 洪性萬, 朴紀正, 李成俊, 吳效鎮, 安炳燦
편집주간: 李世震 편집장: 嚴海鎔 기자: 安興燮, 金志妍, 金愛泳

회장 졸업 축하

존경하는 金鍾云총장! 교수 및 교직원 여러분! 학부모 형제 자매를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

그리고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받고 학창을 떠나는 사랑하는 동창생 여러분!

먼저 여러분에게 오늘이 있음을 중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동시에 여러분의 앞날에 영광 있기를 제가 믿는 하나님에게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학창생활을 마치고 冠岳의 품을 떠나는 여러분 앞에는 21세기가 눈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21세기! 오늘날 전세계의 지성들이 한결같이 海圖없는 항해의 세기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불투명한 세기라는 뜻이었지요.

냉전이 끝나고 나서 「본보기」가 없어진 시대가 된 것입니다.

냉전시대는 동서 양진영이 서로 보편적인 가치라고 믿었던 슬로건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면 그만이었었고, 어떤 의미에서는 마음편한 시대였다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단순한 패턴으로는 아무 것도 해결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21세기에 필요한 인재란 어떤 것일까요?

「남과 다른 것」을 생각하며 행동하는 인간이라고 한 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가치의 주축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디까지 갈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학교에 가서 좋은 교수들로부터 배우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배필을 만나,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것—거기까지 도달하는 것을 자기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도달하고 나서 무엇을 할 것인가는 거의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이제 학창을 나서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무엇을 할 것입니까?

공업사회에서는 돌고 도는 사회의 한모퉁이에서 돌고 도는 역할을 하는 인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획일적인 교육, 학과중심의 공부 잘하는 인간을 대량생산하여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네 경제를 일으켰고, 고도성장을 지탱하여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컴퓨터나 로봇이 인간을 대신하여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돌고 도는 인간은 점차 필요없게 되어가고, 컴퓨터나 로봇에게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창조하는 인간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정보 하이웨이가 가정에도 기업에도 또 외국의 어느 누구와도 거미줄처럼 연결되는 시대에는 오늘날과 같은 Office Work의 태반이 필요없게 될 것이고, 중간관리직이라는 애매한 직업도 없어져 갈 것이 분명합니다.

인간 개성의 중요성이 커지고 참다운 의미의 개인주의—Individualism이 존중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一見 모순되는 것 같지만 정보하이웨이가 세계를 연결하는 시대가 되고, 문화가 동질화되어가면 갈수록 민족마다 민족 나름의 개성을 살린 전통문화

가 소중해지고 높은 가치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Key-word가 되는 세계화, 국제화란, 결코 남이 갔던 길, 남이 하던 일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창조하는 일이며 우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찾아서 해내는 것—바로 그것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길이며, 세계 무대에 참여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또 물을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간, 어떤 인격체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까?

20세기는 격동의 세기였습니다. 혁명과 전쟁의 세기였습니다. 그동안 세계의 사람들은 국가와 민족의 이름으로, 또는 이데올로기의 이름으로, 혹은 종교의 이름으로 싸우고 퍼 흘리고 사납게 살아오면서 바로 인간 그 자체에 대한 洞察—어느 누구나 인간이면 착한 마음씨를 갖고 태어난다는 그 본바탕을 잊어 버리고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거칠어지고 사람들이 쓰는 말은 사나워지고 사람이 사람을 좀처럼 믿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잊어버렸던 낱말들을 찾아봅시다.

고상한 말씨, 점잖은 행동, 예의범절, 너그러움—이런 것들이야말로 평소 우리 겨레의 것이고 선비의 품격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선비는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이야말로, 동문들이야말로, 선비의 정신과 체통을 살려가야 할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동문들의 수, 20만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국내 요처에서 각기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5대양 6대주에 동문들의 발자국이 역연합니다.

내년은 모교 창립 50돌이 되는 해입니다.

모교에선 최근 2020년의 장기 발전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민족의 대학만이 아니라 세계의 대학으로 웅비하기 위한 야심적인 청사진입니다. 모교를 새 시대의 국제수준으로, 세계의 대학으로 끌어 올리는 사업은 학교당국이 나 재학생만의 일이 아닙니다. 동문 모두에게 맡겨진 책무입니다. 우리 모두 총동창회의 깃발 아래 굳게 뭉쳐서 모교를 더욱 발전시키는 지혜와 힘을 모아 갑시다. 모교의 발전이 조국의 발전임을 다짐합니다.

모교의 창학정신을 상기합니다.

「眞理는 나의 빛」—VERITAS LUX MEA—

사랑하는 여러분! 변하는 시대의 물결에 뛰어들시다. 모험과 위험이 따를 것이지만 여러분의 두뇌, 여러분을 길러낸 우리 서울대학교, 나가서는 우리 민족의 빼어난 자질과 강인한 근성이 여러분의 앞날을 성취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21세기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 패기 있는 젊은이들의 것입니다.

海圖없는 바다를 항해할 때 우리의 창학정신은 우리의 길잡이가 될 것이고, 발전해가는 우리들의 모교는 등불이 될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행운과 건승을 거듭 기원하면서 축사에 갈음합니다.

1995년 2월 25일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장 金在淳

총장 졸업식사

만장하신 내외 귀빈, 하객 여러분, 그리고 교수 교직원 여러분, 오늘 서울대학교 제49회 학위수여식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성대히 거행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졸업생 여러분, 그동안 각고의 정진을 계속하여 마침내 영예로운 학위를 취득한데 대하여 만강의 축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21세기의 새 역사를 주도할 여러분의 앞날에 내내 성공과 보람이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울러 여러가지로 부족한 교육여건에서 정성껏 가르치고, 지도하시어 이렇게 훌륭한 인재를 길러 내신 여러 교수님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이 학생들이 오늘의 영광을 얻기까지 학교생활에 필요한 제반 지원을 하여주신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사가 있게 한 공이 어찌 대학에만 있겠습니까?

졸업생 여러분들을 낳아서 키워주시고 이날까지 뒷바라지 해오신 학부모 여러분들이야말로 가장 큰 공로자일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학부모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그 수고가 헛되지 않아 오늘 이렇게 유종의 미를 거두시게 된 것을 경하해 마지 않습니다. 또 오늘 우리 대학에서 배출하는 졸업생들은 이 나라의 가장 미쁜 동량재가 될 것이 분명하므로 이들의 학위취득은 나라의 경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식전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루어 온 것만을 축하하는 자리일 수는 없습니다. 졸업은 하나의 종결이며 동시에 또 다른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이 식을 통해 학위를 취득하는 여러분의 대부분은 오늘로써 학교를 떠나서 사회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단지 대학교육을 종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국민학교에서부터 시작된, 더러는 그 이전부터 시작된 제도화한 긴 교육과정을 마치고 실제의 세계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런 경우 오늘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크고 굵은 획을 긋는 중요한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가 예비기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그동안 여러분이 가꾸고 준비해온 알찬 꿈을 펼치고 공들여 설계해 온 높은 인생의 목표를 실현해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가슴 벅찬 새 인생도정의 출발점에 선 여러분에게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몇가지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저는 먼저 지식인의 윤리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자타가 공인하는 이 나라 최고의 지식인들입니다. 이 말은 이제 여러분이 습득한 지식에 대한 평가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은 실천의 세계로 나아가고 있으므로, 그 말은 곧 우리 사회와 이웃을 올바르게 복된 길로 인도해야 할 남다른 책무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시련이나 난관에 부딪치면 그것을 앞장서서 해결할 사람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 주위의 비합리적인 것이나 비효율적인 것이 있으면 그것을 숭선하여 개선해야 할 사람도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분야에서 활동하게 되더라도 개인의 안위나 이익

보다는 사회와 이웃의 복리를 우선하여 생각해야 하고, 그런 공동의 선을 위하여 진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남보다 탁월한 지능과 남보다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의 도덕적 의무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보다 특전을 덜 누렸던 사람들... 소외되고 어렵고 가난한 계층을 위해 자기희생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책임감, 사명감이 행여 오만이나 독선으로 빚나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남을 위해 일하는 의로운 사람이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은 자신의 의로움에 도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자기 뿐이라는 그릇된 환상에 빠지게 하고 그 결과 자기만이 옳다는 착각을 갖게 합니다. 우리는 숭고한 이념을 가지고 출발한 사람이 나중에는 독선적이고 배타적이 되어서 실패한 많은 예를 역사에서 보아왔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늘 겸손하고 자신을 반성하는 태도를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창조적 사고를 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20~30년간 여러분의 선배들은 국가발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이 나라 민주화의 초석을 놓았을 뿐 아니라, 우리의 경제적 수준을 획기적으로 제고하였습니다. 그들의 노력의 덕분으로 지금은 정치, 경제, 문화, 학술등 제분야에서 기본적인 여건은 갖추어진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것을 토대로 하여 한 차원 높은 발전을 이룩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은 앞으로 세계를 상대로 경쟁해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남을 따라 잡기 위해서 남이 이루어 놓은 것을 받아들이고 모방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남을 앞지르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야 하는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끝으로 저는 여러분이 이후로도 계속 탐구하는 태도를 견지하기를 당부합니다. 여러분들 중의 대부분에게는 오늘로써 제도교육이 끝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배우는 것 자체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것은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와 훈련에 불과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가장 종합적이며 난잡하고 심오한 연구대상인 인생과 맞부딪치게 됩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제대로 풀어 나가려면 지금까지 습득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과 훈련을 쌓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 자리는 저에게는 또 각별한 의미가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졸업식에서의 사사로운 일에 언급하는 경솔이 허용된다면, 저 역시 서울대학교에서의 오랜 교편생활을 마무리하고 수십일 뒤에는 정년퇴임으로 여러분들처럼 서울대를 「졸업」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비록 여러분들과 같은 빛나는 업적은 남기지 못했지만 學究로서는 있는 힘을 다한 보람찬 한 생이었음을 말씀드리며 이것을 가늠게 만들어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학위취득을 축하하며 여러분의 앞날에 찬란한 영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1995년 2월25일

서울대학교 총장 金鍾云

동창회 장학금 1억7천여만원 지급 작년보다 19명, 3천여만원 많아

95學年度 第1學期 獎學金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재)관악회



金在淳회장이 장학금 전달후 축사를 하고 있다.

本會를 비롯한 각 단과대학(원)동창회는 최근 95년도 1학기 장학금을 지급하고 후배들의 학구열을 독려했다.

이번 장학금은 본회(재단법인 冠岳會)가 86명에게 8천3백90만7천원을 지급한 것을 포함, 각 단과대학(원)에서 총 2백23명에게 1억7천4백17만3

천5백원을 지급했으며, 前年同期對比 인원수는 19명이 늘었고 금액은 3천여만원이 증액됐다. 그 원인은 등록금 인상과 본회가 수혜자를 13명 증원해 그 혜택의 폭을 넓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本會(재단법인 冠岳會)이사장 金在淳은 지난달 20일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李世霞사무처장의 사회로 신중진(人文大 4년)군동 학부생과 석·박사과정의 재학생 86명에게 8천3백90만7천원을 지급했다.

金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자신이 가진 것을 남에게 베풀기 위해서는 자신부터 사랑하고 아낄 줄 알아야 한다』며 『예측 불가능한 21세기를 준비하면서 깊고 멀리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울 것』을 당부했다. 이에 답해 조재열(工大박사과정)군은 참석학생들을 대표해 『선배님들의 따뜻한 격려를 잊지 않고 모교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후배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각 단과대학(원)동창회에서 지급한 장학금과 인원수는 다음과 같다.

▲가정대학동창회(회장 李仁子)=木蓮會장학생 1명:74만5백원

▲간호대학동창회(회장 楊銀淑)=5명:4백11만7천원

▲미술대학동창회(회장 金瑞鳳)=1명:60만원

▲법과대학동창회(회장 琴震鎬)=駱山獎學會 51명:3천9백27만원

▲사범대학동창회(회장 閔丙峻)=15명:6백만원

▲상과대학동창회(회장 張禮準)=向上獎學會 34명:1천7백만원

▲수의과대학동창회(회장 金範來)=1명:70만원

▲약학대학동창회(회장 黃善瀨)=5명:1백50만원

▲음악대학동창회(회장 李誠載)=1명:1백13만3천5백원

▲치과대학동창회(회장 李春根)=4명:5백10만6천5백원, 同門장학금 4명:2백40만원

▲대학원동창회(회장 李光魯)=4명:4백40만원

▲경영대학원동창회(회장 李燦河)=1명:89만7천5백원

▲행정대학원동창회(회장 姜敏求)=5명:4백75만1천5백원

▲환경대학원동창회(회장 朴亨錫)=5명:1백65만원 (志)

커버스토리

조수미, 발전기금 위해 모교 오케스트라 협연

세계적인 콜로라투라로서 카라얀으로부터 「신이 내린 목소리」라고 극찬을 받은 曹秀美(81년 音大入)동문과 모교교수를 비롯해 재학생과 졸업생들로 구성된 모교 오케스트라

이날 프로그램으로는 롯시니의 「William Tell」서곡을 비롯해 김동진의 「신아리랑」, 「저 구름 흘러 가는 곳」등 10여곡이 연주될 예정이다.

모교 음악대학(학장 徐友錫)이 주최하고 (주)서울방송과 중앙일보사가 후원하는 이번 공연은 모교 발전기금 모금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모교 음악대학(학장 徐友錫)이 주최하고 (주)서울방송과 중앙일보사가 후원하는 이번 공연은 모교 발전기금 모금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金鍾云총장 석별만찬 마련



좌로부터 金相廈부회장 金商周부총장 權彝赫 前총장 金鍾云 총장 金在淳회장 鄭宗澤상임부회장 宋斗瀾부회장

本會(회장 金在淳)는 2월28일자로 정년퇴임과 동시에 총장직을 이임하는 金鍾云총장을 위로하고 그동안의 노고와 업적을 기리기 위한 석별만찬모임을 지난달 20일 하얏트호텔에서 가졌다.

이 자리에는 崔主鎬명예회장을 비롯해 鄭宗澤상임부회장, 徐廷和(국회의원), 李奭熙(대우일본재단회장)부회장등 회장단 10여명과 (재)관악회 임원, 각 단과대학동창회장, 權彝赫前총장, 金商周부총장을 비롯한 모교 보직교수등 60여명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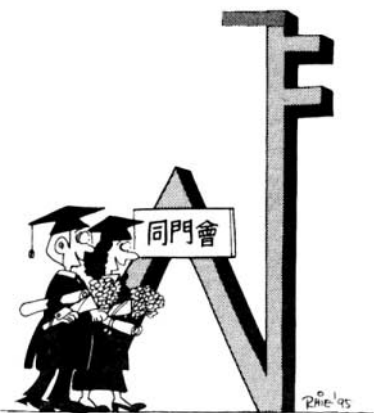
金회장은 『동창회장을 1년하

면서 정도 들었는데 이렇게 헤어지게 되니 서운함을 감출수 없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더욱 큰 업적을 남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金총장은 답사를 통해 『이런 성대한 자리를 마련해주시고 축복의 말씀을 해주신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말하고 『그동안 세계적인 대학으로 나아가기 위해 나름대로 힘쓴 덕에 모교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모교를 비롯해 국내 대학의 국제화는 아직도 요원한 실정』이라면서 『정부와 동문을 비롯한 국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만평

李元馥



영원히 떠날 수 없는 門
—入門을 祝賀합니다.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모금

조수미·서울大 오케스트라 협연

「신이 내린 목소리」라 극찬받고 있는 세계적 콜로라투라 조수미 동문과 모교교수·학생·졸업생들로 구성된 서울大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이 오는 3월15일 오후 7시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있습니다.

이 공연은 모교 발전기금 마련을 위해 서울대학교 총동창회가 지원하고 (주)서울방송및 중앙일보사가 후원하는 행사입니다.

모교 발전을 위한 기금모금에 동문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처: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학장실(전화:880-7900, 877-4179)

콘서트 추진위원장
서울대학교총동창회장

金在淳



좌로부터 李春桂 동국대 교수 元映玉 국민대 교수 玄己順 초대 회장 李仁子 회장 安承堯 모교학장
林元子 모교교수 韓相淳 건국대 교수

가정대 신입회원 환영 「목련회 화보」제작·홈커밍행사 갖기로

가정대학동창회(木蓮會·회장 李仁子)는 지난달 22일 리베라호텔에서 2백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95년도 정기총회 및 신입회원환영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李회장은 「3천여 동문을 대표해 신입회원 여러분을 열렬히 환영한다」며 「나와 내 가족만 생각하는 차돌같은 엘리트의식보다는 따스함을 나누는 진정한 엘리트의식을 가진 선후배가 되자」고 말했다.

참석 동문들은 지진으로 고생하는 재미동문들에게 1천불을 송금하는 등 그동안의 사업

과 회무등을 보고받고 회칙을 개정했으며 선후배 상견례시간을 가졌다.

특히 신입회원중 권한길(의류학), 나선일(소비자아동학) 동문은 가정대학에서는 좀처럼 만나기 힘든 남학생이라 주목을 받았다. 이들은 쑥스러워하면서도 진지한 모습으로 「여자선배들의 모임이라 미약할줄 알았는데 모교지원등 그 역할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적성을 살리는 것은 물론 회소가치만큼 책임감을 갖고 동창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회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同會는 내년 개교50주년을 기념해 홈커밍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회원들의 사진을 수집해 「목련회 화보」를 제작, 배포하기로 했다. 40년대에 졸업한 선배부터 90년대에 졸업한 후배의 사진까지 망라하게 될 이 화보는 한국가정학사의 역사적 기록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특별초대된 本會 李世震 사무처장은 모교발전기금 마련을 위한 서울대총동창회·국민카드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약대동창회 공로동문·우수졸업생 시상 신임회장에 李禮植동문 선출

약대학동창회(회장 黃善瀨)는 지난달 24일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尹斗石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건강상의 문제로 黃회장이 참석치 못했다」고 전하고 「회원들에 관한 정보를 전산화했으니 많은 이용 바라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협조를 바란다」는 黃회장의 인사말을 대독했다.

6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총회에서는 그동안 동창회발전과 회원들의 친목강화에 지대한 공헌을 한 宋昌鎭 동문을 비롯한 5명의 동문에게 총동창회장賞이 수여됐으며, 李炯鐵 동문을 포함한 10명의 동문에게 약대동창회장賞을 수여했다. 또한 장학금지급과 함께 95년도 우수졸업생인 都英美(제약학과), 李效貞(약학과)양에게 기념품과 상장을 수여했다.

특히 이날 동문 자녀가 모교에 입학하는 경사가 있어, 그 주인공인 金充京 동문의 아들 형노(공대 컴퓨터공학과) 군 등 4가족은 同會에서 마련한 기념품을 받고 동문들의 큰 축하를 받았다.

한편 사업보고와 감사보고 및 예결산 보고가 만장일치로 통과된 후, 黃善瀨회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1년 남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회장직을 사퇴

한다는 뜻을 받아들여, 同會의 전임회장이자 자문위원으로 있는 李禮植 동문을 회장으로 추대했다.



李禮植 前자문위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의대동창회 함춘祺聖선발전 全承煥동문 아마4단에 등극

의과대학동창회(회장 姜信浩)는 지난달 12일 모교 제1교수회의실에서 제12회 친선바둑대회경 '95 含春祺聖 선발전'을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아마추어 고수 회원 27명을 포함한 35명의 회원이 참가해 대국마다 일전을 펼쳤으며, 참관회원들의 진지하면서도 열띤 성원도 중

일 이어졌다.

李吉女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회원 모두가 선전해 좋은 기록을 내줄 것」을 당부했으며, 高在熙 사법주관으로 열린 「다음 한 수 알아맞추기」교수풀이에서는 정답을 맞춘 기사에게 즉석 상품을 시상했다.

한편 이날의 주인공인 含春祺聖에는 全承煥 동문이 올라

영원히 남을

李漢基교수의 선비정신

—李相禹 서강대교수



참선비는 말로 가르치지 않는다. 스스로의 삶을 통하여 제자들을, 그리고 세상을 가르친다. 머릿속에 그리는 세계, 마음속에 간직한 뜻, 몸에만 자세를 우러러 보는 사람들이 그 꿈과 자세를 보고 배워 나간다.

箕堂 李漢基교수는 우리 시대까지 참선비의 전통을 이어주신 드문 분이셨다. 선생님을 교수로 모시고 곁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서울대학교 동문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었다.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선생님을 직접 모시고 함께 토론을 벌였던 법대 졸업생들은 더 큰 복을 누린 셈이며, 1961년 대학원 입학부터 이번에 선생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34년간 「조교」로 선생님을 모실 수 있었던 나로서는 가장 큰 복을 누렸다고 스스로 생각한다.

조선조 말기의 實踐儒學의巨頭이신 高祖父 石田 李最善 선생의 맥을 이어 箕堂선생도 참선비의 뜻을 가꾸는데 80평생을 바치셨다.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 현실 세상을 바로 잡는 길을 열어간다는 선비정신의 실천을 위해 箕堂선생은 한평생 쉬지 않고 노력하셨다. 일본 第四高, 동경제국대학에 다니며 서양을 배우고 서양을 수용한 일본을 배우는데 젊은 시절을 보내시고, 귀국후 언론계에 잠시 머물다가 대학교수의 길에 들어서서 30년을 한결같이 수도자로서 자세의 흐트러짐없이 학문의 길, 선비의 길에 매진하셨다.

열강의 각축속에서 나라를 잃은 통분에서 국제정치를 바로 이해하고 적응해 나가는 길만이 민족자주를 지키는 길

이라 생각하시고 선생께서는 평생을 국제법을 붙들고 후학을 가르치셨으며 특히 영토수호를 위한 국제법을 탐구하셔서 「韓國의領土」라는 저서를 남기셨을 뿐만 아니라 독도 영유권 투쟁을 위한 우리측 주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셨다. 「국제법을 뒷받침하는 국제정치를 연구하라」고 나에게 귀한 책을 구해 주시면서 간곡하게 권하시던 선생님의 젊으셨을 때 모습이 선하다.

선생님은 서양학문의 틀을 소화한 후 우리의 학문전통을 그 속에 담으려는 꿈을 가지고 계셨다. 그의 글 「蘆沙와石田」은 그 시작을 알리는 글이었다. 그러나 아깝게도 시작이 조금 늦어 미처 이 역사적 과업을 못 마치신 것이 못내 아쉽다.

선생님은 자전적 글에서 슈베르트의 〈겨울나그네〉의 한 곡인 「보리수」를 자주 거론하셨다. 고향 담양 장전의 迎瑞堂 앞뜰의 살구나무와 비유하면서 마음속에서 언젠가는 되돌아가실 상징적 회귀점으로 「출발」을 생각하셨다. 뿌리를 생각하셨다. 아무리 현대사회속에서 새로운 삶의 양식에 젖었어도 魂은 변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속에서 삶을 유지하는 사람은 변할 수 없는 것이다. 선생께서는 학문의 原點을 늘 인간에 두기를 후학들에게 가르치셨다. 인간에서 출발하여 인간으로 되돌아오는 학문을 가르치셨다. 선생님은 瑞石山(무등산)을 그 출발의 상징으로, 그리고 瑞石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징으로 迎瑞堂을 생각하신 것 같다.

이제 선생님은 바로 迎瑞堂 앞마루에서 건너다 보이는 老松속에, 집안어른들 발밑에 조용히 묻히셨다. 「기쁠때나 슬플때나 찾아온 나무밑... 迎瑞堂 앞」에 돌아가 묻히셨다. 그러나 선생님의 선비정신은 제자들의 마음에서 더욱 싱싱한 살구꽃을 피우고 있다. 그런 뜻에서 箕堂선생은 永生을 얻으셨다. 선생의 애국애족의 뜻과 선비정신은 제자들을 통하여 영원히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기원으로부터 아마4단 인허증을 교부받고 李純炯회장으로 부터 우승트로피를 받았다.

姜회장은 폐회사에서 「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선전해주신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내년에는 더욱 더 향상된 기량을 갖추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대회의 입상자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A조(1, 2급): 우승 全承煥, 준우승 陳泰薰, 3등 鄭相立 동문

▲B조(3, 4급): 우승 朴性琪, 준우승 李夏吉, 3등 尹秀重 동문

▲C조: 우승 李炳州 동문

(志)

행대원27회 맹인소망원 방문 불우이웃에 쌀·라면 전달



좌로부터 千基鎬, 具本傑, 李文鎬동문, 金희장, 金行福, 宋海俊, 趙錫俊동문, 李贊海소망원장.

행대원27동기회(회장 金棕鎬·前해군참모총장)는 지난달 17일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 노곡리 실토암 맹인소망원을 방문, 쌀 5가마와 라면 1백상자를 전달했다.

지난 87년부터 시작된 불우 이웃돕기의 일환으로 실시한 이번 행사에는 趙錫俊(前행정대학원장)동문을 비롯 宋海俊(前전남경찰청장), 金行福(前재무부국장), 李文鎬(경남신문

사국장), 具本傑(前건설공제조합전무), 千基鎬(前경찰청형사국장)동문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법대19회, 동문자녀 장학금 수여



오는 5월에 열릴 졸업30주년 기념행사에 대해 논의.

법대19동기회(회장 崔基永)는 2월23일 롯데호텔에서 회원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교례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李千洙(교

육부 차관), 鄭鎭龍(정무제1장관실 정무실장), 李泰烈(건설교통부 신공항 기획단장), 金均(駐시애틀총영사), 金德永(前충북지사), 崔基永(정선 대

표이사), 明浩根(쌍용투자증권 사장)동문등이 참석, 모교 법대에 합격한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 전달식과 오는 5월에 개최될 「졸업 30주년 기념행사」에 대한 안內在 있었다.

崔회장은 「각 분야에 주도적 위치에 있는 동문들이 사회 및 동창회를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해달라」며 참석한 동문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법대26회 바둑대회

법대26동기회(회장 金洪柱)는 2월18일 서울기원에서 바둑대회를 개최했다.

분기별로 행해지는 이번 바둑대회에서는 10여명의 회원이 참석, 李仁濟동문(국회의원)이 우승트로피를 차지했다.

약대25회

약대25동기회(회장 李相明)는 2월23일 모교 호암관에서 동기모임을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沈昌求동문의 아들이 모교 약학과에 입학하게 된 것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약대34회

약대34동기회(회장 丁世榮)는 최근 삼정호텔에서 회원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鄭 燁동문을 회장으로 선출하고 졸업20주년을 대비, 장학기금을 모금하기로 전원 찬성, 참석자 전원이 10만원씩의 기금을 냈다.

의대4회

의대4동기회(회장 石東壽)는 졸업 4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동기들의 글을 모아 「근우회」라는 문집을 만들어 배포했다.

동기들의 수필, 의학강좌등의 글들로 엮인 이번 문집은 멀리 미국에 있는 동기들에게까지 배포, 동기애를 돈독히 했다.

耳順테니스회

耳順테니스회(회장 李禮植)는 오는 3월19일 오전 9시30분 모교 테니스코트에서 신입회원모집을 위한 테니스대회를 개최한다.

체력단련은 물론 회원간의 친목과 우의를 돈독히 하고 있는 이 모임은 3월 마지막 일요일과 6월6일, 10월3일에 정기대회를 갖는다.

同會는 만 60세 이상의 테

니스를 좋아하는 동문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연락처 李海遠간사·전화 752-0558)

상대3·6회

상대 3·6동기회(회장 洪性澈)는 지난달 15일 서울롯데호텔에서 신년모임을 가졌다.

同會는 8·15 해방직후 학교편제가 바뀌면서 1946년 함께 입학한 고등상업 전문부 3회와 서울상대 학부6회 동기들로 구성됐다.

이번 모임에는 趙 淳(前부총리), 柳致松(헌정회고문), 裴奎聖(前농수산차관보)동문등 70여명이 참석, 지난해 3월에 선임된 임원을 소개했다.

법대16회

법대16동기회(회장 韓榮洙)는 1월18일 국방회관에서 신년교례회를 가졌다.

9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이번모임에서는 지난해 결산보고 및 회지배포, 경품추첨등이 있었다. 추후 사업계획은 임원회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모교 음대 학생들의 연주 속에서 친목을 다졌다.

경대원 석사6회

경대원 석사6동기회(회장 姜熙慶)은 오는 3월 11일 오후4시에 신사동에 위치한 만리장성 2층 장미홀에서 모임을 갖는다.

이날 모임에는 崔景秀동문을 비롯 희망하는 회원에 한하여 「自社の 사업소개」라는 제목으로 연구발표회를 가질 예정이다. <泳>

95년도 「定期總會」개최 안내

同窓會 1995年度 定期總會를 아래와 같이 개최코자 하오니 同門들의 많은 참석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 아 래 —

- 일시 : 1995년 3월 25일(土) 오후 2시
- 장소 : 라마다 르네상스호텔(3층)다이아몬드볼룸
- 안전 : ①94년도 결산승인
②기 타

- 회비 : 2만원整
- 기타 : ①폐회후 부페
②기념품 추첨 행사

서울대학교總同窓會 會長 金在淳



서울대출신 안뽑기작전(?)

일본의 소니그룹 창립자이며 소니라는 그 이름을 전세계에 드높인 모리다야키오(盛田昭夫)씨의 유명한 저서로 「학력무용론」이 있다. 무에서 작은 기업을 일으켜 세계일류를 만들어 놓은 장본인의 입에서 「학력같은 거 필요없다」는 말이 나오다니 의외일 수밖에 없다. 우리 생각엔 대단한 두뇌들이 연구실에 틀어박혀 머리를 싸매고 끙끙거린 끝에 신상품을 개발해서 턱턱 터뜨려가며, 소니를 오늘날 이처럼 키웠을 것만 같은데, 이런



吳效鎭 SBS편성이사

범인들의 범상한 생각이 여지없이 빛나가고 있다.

모리다 회장은 보란듯이, 머리가 좋은 일류대 출신들이 아닌 범인들의 범상한 생각을 모아서 비범한 상품들을 개발한 비상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정말로 신입사원을 뽑을 때 도쿄대학이나 와세다대학이나 하는 학력을 전연 보지 않고 뽑아서, 트랜지스터·녹음기·워크맨·VCR·8mm비디오 카메라·미니디스크 같은 상품들을 새로 만들어내게 하고 있다.

일본의 민방을 비롯한 유수한 언론기관들도 신입사원을 뽑는 방법을 근래들어 아주 많이 바꿨다. 어딜가나 시험을 잘치는 시험꾼, 곧 머리좋은 사람들을 떨어뜨리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도쿄대 출신들은 어떻게 하면 떨어뜨릴까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후지TV, NTV, TBS같은 유명한 민방들은, 우선 원서에 대학기재란을 없

였거나, 있어도 마지막에나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필기시험으로는 응시자의 절반정도만 뽑는다. 그리고 2~3년 정도 선배가 담당하는 면접에서 시작해서 10년정도의 선배, 데스크나 부장급, 국장급, 임원과 최고 경영자들이 담당하는 면접·세미나·워크숍을 심도있게 거쳐 창의력·협동심·일에 대한 열정 같은 것을 주로 본다. 이들 회사는 이렇게 제도를 바꾸고 나서, 10명 뽑으면 8~9명 정도는 만족할 만한 수준의 인재를 건질 수 있었다

고 말한다. 곧, 머리만 좋고 다른 것이 떨어지는 시험꾼들을 떨어뜨리는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최근 우리 언론계에도, 자칫 머리만 좋고 창의력·협동심·열정이 부족한 사람을 뽑아 낭패볼 확률이 높은 기존 선발제도에 대한 반성이 일고 있다. 그래서 필기시험의 중요성이 떨어지고 면접이나 워크숍, 인턴근무의 성격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는 추세로 나가고 있다. 이러다간 머지 않아 서울대 출신 떨어뜨리기 작전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이 불똥이 다른 그룹사같은 데 번지면 그것도 작은 문제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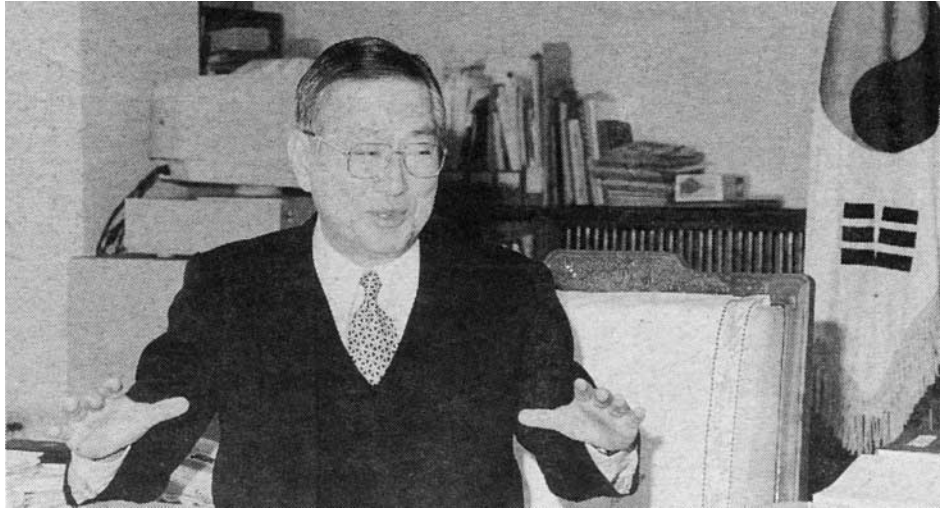
최근 법대·의대·약대·사대 등에 대한 대학교육발전계획이 거론되고 있다. 이 기회에 머리만 좋은 사람을 뽑아, 세상에서 기피하는 사람으로 가르칠 개연성이 있는, 지금의 입시·교육제도를 함께 생각해 보는 것도 쓸데없는 일은 아닐 것 같다.

(본보 논설위원)



金鍾云총장 告別 인터뷰

2천년대 장기발전계획 수립 "제2캠퍼스 건립 못해 아쉬워"



『세계적 대학과 경쟁 평가력은 研究라는 요소입니다. 교육과 연구가 병행되는 대학원이 그 중심역할을 수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金鍾云총장은 지난달 18일 총장실에서 대학 발전계획 방향으로 추진했던 「대학원중심대학」에 관한 얘기를 시작으로 본보와의 인터뷰를 풀어나갔다.

—총장께서는 관련학과 통합 및 재정적 문제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과 결과를 낳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람있었던 일과 아쉬웠던 일이 있다면...

『보람은 국내외 정세변화에 불구하고 학생, 교수가 일심단결해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意志를 결연히 함으로써 면학분위기가 날로 일신되고 있는 것입니다』

『24시간 개방하는 도서관 열람실을 요구하는 학생들은 이런 경향을 단적으로 증명해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농생대의 이전을 완결하지 못했고 제2캠퍼스 문

제, 그린벨트법에 묶인 부지조달의 아쉬움, 사법대학 부속학교들의 관악캠퍼스로의 未이전 등의 문제들은 지금 제2캠퍼스라 할 만큼 활발한 시기에도 시행하지 못한 아쉬움입니다』

—근래 법대, 사대, 치대, 의대의 경우 학부제를 없앤다는 발표가 있어 해당대학 동문들의 비판적 의견이 높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2천년대 미래상의 대학개혁을 위한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봐야할 것입니다. 또한 질 높은 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대 단독으로는 불가능하며, 사회가 전체적으로 참여가 돼야 가능한 것입니다』

—총장의 여러가지 역할중 요즘은 총장의 경영자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립대와 비교해서 국립 서울대 총장의 바람직한 역할은...

『그렇습니다. 요즘은 경영자적 역할이 강조돼 예산의 배당 처리등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부각되는 실정인데, 기업인처럼 지나친 상업주의는 곤

란하다고 봅니다. 대학의 총장은 학문적 성취도가 있어야 하며 중용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총장님의 향후 계획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그동안 총장직을 수행하며 미뤄왔던 공부, 자료가 매우 생소해 다시 살펴보고 정리하는 일이 급하지만, 지난 4년동안 휴가다운 휴가를 단 한번도 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좀 쉴까 합니다』

—본회와 21만 동문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프랑스는 국립대학들로 대학 출신자들이 당연한 권리로 인식할 뿐 동창의식이 없습니다. 반면 미국은 전통이 강한 사립대가 중심이 돼 모교에 대한 기여도가 매우 높습니다. 60대동문과 이제 막 졸업한 20대 동문간에는 한가지를 빼고는 사실 공통점이 거의 없습니다. 그 한가지가 바로 모교입니다. 그러므로 동창회는 지금보다 더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하며, 그 발전은 곧 모교의 발전과 연결돼야 할 것입니다』

(嚴)



예일대학

300년 전통의 전형적 귀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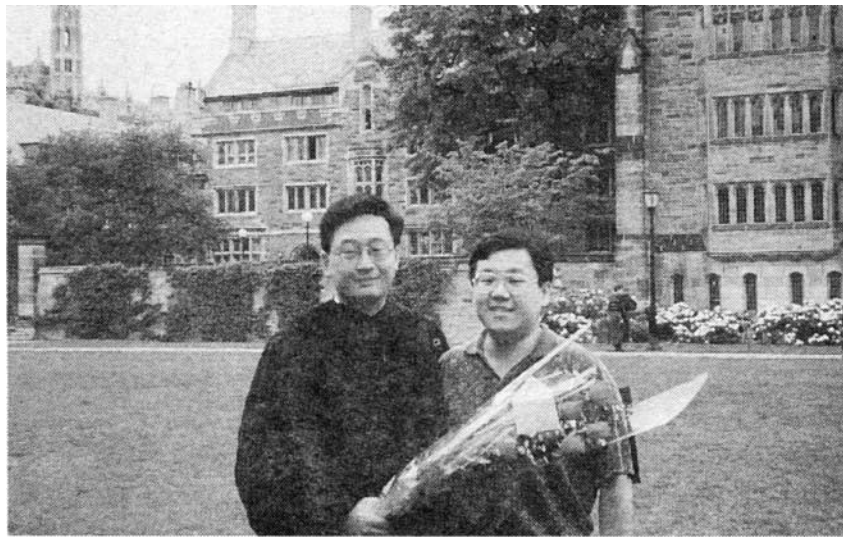
인문과학분야에 독보적 명성

1702년 첫 졸업생을 배출한 이래 예일대는 대학설립에 기여한 웨일즈 출신의 Elihu Yale을 기념하여 1718년 Yale College로 명명되었고, 1887년 정식으로 Yale University로 불리우게 되었다.

미국 동부 코네티컷주에 위치한 예일대는 하버드대보다 규모는 작다. 그러나 연례적인 행사의 하나인 예일-하버드 정기전을 참관하면 가히 양 대학의 라이벌관계를 실감할 수 있다. 청교도에 의해 설립된 전통에 있어서는 양 대학이 공통점이 있지만, 하버드대가 실용주의적 학문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 대학의 규모를 확대시킨 반면에 예일대는 아직까지 공과대학이 거의 전무하고, 문학, 사학, 신학 등 인문과학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대학원의 규모도 소수 정예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유학생의 규모도 명문대학의 명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특히 12개의 College로 운영되는 학부는 학생들이 입학시 자신의 전공보다는 어떤 College에 입학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관심사가 된다. College에 소속된 학생들은 교수의 강의와 지도를 통해 자신의 적성에 알맞은 분야를 전공으로 선택하게 된다. 또한 복수전공도 허용되고 있어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학문을 고르게 섭취할 수 있다.

예일대의 학부과정은 어떤 전공에 구속받지 않고 자신의 가능성을 키워나가는 준비과정이라면 대학원과정은 출발부터 철저하게 자신의 전공에 매달리는 전문인력의 양성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원과정은 매우 세분화되어 있고, 어떤 학과는 입학시 지도교수까지 결정되기도 한다. 자신



필자의 졸업식(후배 백영재군과 함께)날 Cross-campus교정앞에서

이 원하는 분야를 선택할 권리는 학생에게 주어지지만 지도교수가 결정되면 그때부터는 중세식 도제제도를 능가하는 교수 대 학생관계가 형성된다.

따라서 교수의 대학간 이동이 빈번한 미국에서는 논문지도교수가 대학을 옮기면 논문이 거의 완성단계에 있는 학생이 아니더라도 지도교수를 따라이사를 해야 한다.

필자가 박사과정에서 가장 즐거웠던 시간은 미국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수들을 초빙해서 첨단의 학문을 접할 수 있을 때였다.

학문의 시각차이에 대해서는 서로를 존중해주면서도 한 치의 학문적 오류를 용납하지 않는 토론의 장이 학문의 발전을 가져다주는 생동감있는 현장이었다.

그런데 한가지 놀라운 사실은 세미나에 초청된 교수들이 대부분 나이 40세를 전후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미국 대학의 교수임용이 우리와는 달리 정교수가 되기까지 계약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장교수들은 대학원생 이상으로 밤샘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하고, 이로 인해 교

수의 이혼율이 매우 높은 것도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계약교수의 고용 불안정에서 해방되어 정교수가 되었을 때 이들은 이미 자신의 분야에서 적어도 한가지 이상은 자랑할만한 학문적 업적을 성취하게 된다.

예일대가 자랑할만한 것은 미술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었던 명화가 소장된 미술관, 매년 국제 테니스경기를 유치할만큼 훌륭한 시설을 갖춘 운동경기장, 한 때 세계 100대 골프코스에 꼽혔다는 대학소유의 골프장, 전세계의 가장 오래된 고서들을 모아 원목에도 견딜수 있도록 특수하게 건축된 도서관, 세계 최고의 지휘자와 연주자들이 자랑스럽게 공연하는 음악홀, 아름다운 건축양식을 보존하기 위해 매년 수천만 달러를 지불해야 하는 중세풍의 건물과 교정, 부시, 클린턴 등으로 이어지는 미국 정계의 중요인물들을 배출하는 대학이라는 명성 이외에 미국내에서 가장 훌륭한 지역연구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고 첨단과학의 시대에 공학보다는 인문·사회·자연과학 등 다 소순수과학을 고집하는 자존심에서 학교의 명성이 연연히 어어져 오고 있다.

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일대의 명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동창회가 재정적인 측면에서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학 총장의 역할중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학교의 발전계획을 세일즈하고 대학발전기금을 모금하는 일이다. 세계적인 학자를 스카우트하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대우가 따라야 하는 미국 명문대의 경우 대학재정이 튼튼해야 대학의 발전이 있다는 논리는 그대로 성립한다.

동창회는 전세계적으로 조직화되어 있고 남색의 불독을 상징으로 하는 예일대에 대한 자부심의 대가로 자발적인 참여속에 동창들로부터 출연되는 기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국 예일클럽은 예일대에서 학위를 취득했거나 예일대에 임시 적을 두었던 한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일대에 한국 학과가 설립되도록 중장기적 기금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레이니 주한미대사를 비롯하여 한·미 관계에 있어서 영향력을 미치는 예일대 출신과 비공식적 접촉을 통해 한·미 외교에 있어서도 우호관계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매월 정기모임과 송년파티를 통해 동창의 친목과 우의를 다지고 있으며, 李洪九총리(정치학 박사)가 동창회 전임회장을 맡으셨고, 현재는 朴晟容 금호그룹회장(경제학 박사)이 동창회장직을 맡아 수고하고 계시다.

예일클럽에 소속되어 있는 국내 주요인사로는 金鍾云서울대총장, 鄭鍾旭前대통령 외교·안보수석, 李鍾律국회사무총장, 金基桓무역진흥공사 이사장, 辛永茂, 申熙澤, 趙大衍 변호사, 그리고 예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모교 강단에 있는 분으로 李仁碩(수학), 諸元鎬(물리학), 姜錫眞(수학), 朴堧用(경제학), 申旭喜(정치학)교수등이 있다.

〈王允鍾 대외경제정책연구위원〉

서울대 동문에 고향

醫學의 세계화

우리나라 제일의 대학으로서 임해온 서울대학교의 지난 여정은 우리 민족의 애환의 역사, 바로 그것이라 할 수 있다.

정치, 경제, 사회, 과학, 의학, 문화에 할 것없이 우리나라 발전의 구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동문들을 생각할 때마다 서울대학교가 추구하고 있는 목표와 위상에 대해 동문의 한사람으로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최근 들어 세계화가 우리의 큰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고, 분야별로 세계화를 이루어내기 위한 각종 전략들이 활발하게 제시되고 있다.

특히 세계화의 첨병이라 할 수 있는 과학기술의 발전은 어느 분야 못지 않게 중요한 과제이며, 이는 국가를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치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면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의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고, 실제 투자가 증가하고 있음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과학기술분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의학분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세기라는 짧은 근대 의학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의학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

세계 최첨단이라 불리는 양전자방출장치(PET)가 지난해 서울대병원에 설치되어 환자진료에 쓰이고 있고, 과거 첨단기기로 알려진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 등은 이미 개원가에게까지 설치될 정도로 보편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서울대병원만 해도 심장, 간장, 이식 등 장기이식과 뇌세포이식수술 등 첨단 수술에서부터 각종 특수클리닉에 이르기까지 진료면에서의 수준은 이미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정도로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다.

이렇듯 서울대병원이 국가 의학을 주도하고, 급속한 의학발전을 이룩한

이면에는 서울대학교라는 울타리가 언제나 병원을 감싸주었고, 선배들의 피땀어린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서울대병원에서는 국내 최대규모의 임상의학연구소와 국내 최초의 임상시험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오는 4월에 착공에 들어가 97년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다.



韓萬鵬 서울대병원장

주지하다시피 세계적인 업적은 제대로 된 연구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의학분야에서의 진료수준은 가히 세계적이라 하지만 연구분야에 있어서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낙후되어 있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실정이다.

의학의 세계화를 위해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연구분야의 활성화를 위한 서울대병원의 종합의학연구소 건립은 때늦은 감이

없지는 않으나 이제라도 연구에 눈을 돌려 세계화를 부르짖을 수 있는 것만해도 큰 발전이라고 보며, 여기에 그동안 쌓아온 서울대학교의 저력이 가미된다면 세계 수준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 어려운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비단 의학분야만 언급을 하였으나 더 나아가 과학분야에서의 진정한 평가는 연구업적으로 가능된다고 볼 때 우리 모두는 연구분야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특히 가시화되는 연구에만 투자하여 결과를 논하는 속성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의 업을 이어받는 후학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깊게 생각하면서 당장 가시화되지는 않더라도 우리에게 꼭 필요하면 과감하게 투자가 이루어지는 풍토가 무엇보다도 선결과제이다.

과학미래의 짐을 짊어지고 나갈 우리의 젊은이들과 오늘도 연구실 한 칸에서 땀을 흘리고 있을 학자들에게 새 봄의 훈훈함을 전해본다.

명예교수칼럼

農心の 텃밭가꾸기



柳達永 명예교수

나는 지난 1936년 서울대 농대 전신인 수원고등농림학교를 졸업한 뒤 10년만인 46년에 모교에 부임하여 30년간 근속하다가 76년 정년퇴임하였다.

농과대학에 봉직하는동안 나는 농민의 의식개혁과 농사짓는 마음(農心)가 꾸기에 힘써온 결과 농업기술자협회, 유기농업협회, 농수산물유통연구원, 무공화연구회, 잔디연구협의회 등 많은 농업단체도 창립하고 육성해왔다.

또한 지난 51년 1·4후퇴 때 내가 대구의 피난 생활중에 집필한 「새 역사를 위하여」가 장기 베스트셀러로 20여회의 재판을 거듭하였는데 그 인세로 수원 근교의 산비탈을 30여년간 개간하여 원예와 낙농을 경영하였다. 직접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여 농민들에게 시범을 보여야겠다는 일념에서였다.

바로 그 농장이 몇해 전에 안산 신갈간의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로 편입되어 정부로부터 보상받게 되었다.

그래서 하느님이 주신 이 특별보너스를 정신교육을 통한 성실한 생활문화 창달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91년에 星泉文化財團을 창설했다.

지도층을 각성시키는 방도를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여러 친구들과 상의하여 재단에 생활문화아카데미를 부설하고 「東西人文古典講座」, 「現代生活文化講座」, 「未來志向文化講座」를 개설했다.

좋은 품종의 과수 품종들은 예외없이 모두 야생나무 대목에 접목한 것들이다. 인간도 올바르게 자라 값진 생애를 살기 위해서는 야생대목에 해당하는 고전에 정신을 접목해야 할 것으로 믿게 되었다.

인간이 성장하는데는 반드시 좋은 스승을 만나야 하는데, 우리는 동서고금의 큰 스승을 고전에서 발견하여 만나게 되는 것이다. 고전은 인간의 고귀한 경험이 응축되어 있고,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지혜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것은 과거에 국한된 낡은 서적이 아니라 「영원한 현대성」을 지니고 있다. 고전을 공부하되 문화적 편식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고전 12과목을 뽑아 「동서인문고전강좌」를 편성했다. 삼국유사 등 국학고전과 佛·仙의 대표적 경전, 그리고 플라톤을 비롯한 서양고전 외에 인도 8억 인구의 대표적 고전인 바가바드 기타와 세계 3대 종교의 하나인 회교 경전 코란까지도 공부하는 정신 연단의 도장을 마련한 것이다.

인간이 성장하는데는 반드시 튼튼한 정신의 뿌리와 더불어 확고한 신념의 지향점이 필요하다. 태양과 같은 밝은 이념은 빠른 속도로 변천하는 현재의 흐름 속에서 우리들의 미래지향의 길을 명확히 밝혀주기 때문이다.

나는 한국의 지도자들이 고전공부와 함께 미래학 공부도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20과목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미래지향문화강좌를 개설하였다. 한편 현재 이슈가 되는 시사적인 주제를 선정하여 특강 형식으로 「현대 생활문화강좌」도 열고 있다.

나의 좌우명은 好學爲公이다. 공자의 好學精神과 예수와 부처의 普施, 愛憐의 정신을 실천하자는 뜻이다. 나는 이 정신의 실천을 위해 재단을 세웠지만 아직은 매우 작은 규모이다. 나의 이 소망은 어린 솔모종이 구름을 어루만지려는 마음(稚松拂雲心)처럼 소박하고도 높은 것이다. 한평생을 몸바쳐온 農心교육을 都心の 작은 텃밭에도 실천해보자는 것이다.

우리 서울대 동문들도 많이 찾아와서 고전과 미래학공부를 하기 바란다.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이 사업을 도와 주기를 부탁한다. (연락처: 성천문화재단 T.786-1754)



요즘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수 상



▲崔主鎬(39년 農大卒·우성그룹 회장·本會名譽會長) = 지난 달 21일 한미장학재단 朴允洙 회장

으로부터 감사패를 증정받았다.

▲朴順子(54년 工大卒·모교교수·本會理事) = 지난해 공대 학술상을 수상했다.

▲李在坤(55년 工大卒·모교교수·本會理事) = 지난해 공대 기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林煥燮(59년 文理大卒·고려대교수·本會理事) = 저서 「한국의 사회변화와 가치관」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수여하는 제 6회 「자유경제출판문화상」 수상.



▲趙炳祐(64년 工大卒·유종실업대표·本會理事) = 지난해 공대 발전공로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裴洵勳(66년 工大卒·대우전자사장·本會理事) = 홍콩의 유력전자 월간지인 「일렉트로닉 비즈니스 아시아」 94년 송년호에 「아시아의 10대 전자인」으로 선정됐다.

▲李忠九(67년 工大卒·현대자동차부사장) = 지난해 94년 공대 발전공로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李珉柱(80년 美大卒·화가) = 3월 제 1회 한국 미술 신예작가상 최우수작가상 수상, 日本에서 열린 제 16회 국제 扇面展에서는 일본 민족의상 문화보급협회 회장을 수상했다.



▲徐燦珏(46년 法大卒·대한불교진흥회이사장) = 2월8일 불교방송 공개홀에서 「백제미술(무녕왕릉 출토품을 중심으로)」을 주제로 제47회 다보문화강좌를 개최.

행사·출간

▲趙永植(50년 法大卒·경희학원장·本會理事) = 2월 14일 올림픽파크텔에서 오는 5월30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청소년대표자회의」추진준비회의를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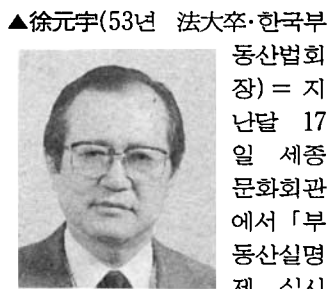


▲白樂院(51년 醫大卒·인제대총장·本會副會長) = 최근 인제대 본관 회의실에서 대학생, 고교생 등 76명에게 仁堂장학금을 수여했다.



▲車仁錫(52년 文理大卒·유네

스코한국공사사무총장·本會理事) = 프랑스 유네스코본부 철학국 주최로 열린 「철학과 민주주의」라는 주제의 국제회의에 참석.



▲徐元宇(53년 法大卒·한국부동산법회장) = 지난 달 17일 세종문화회관에서 「부동산실명제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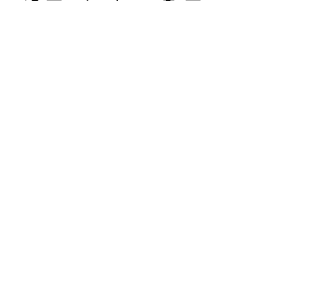
에 따른 법적 검토」를 주제로 학술발표회를 개최.



▲李相敦(53년 醫大卒·중앙대의대교수·本會理事) = 정년퇴임을 맞아 지난 달 23일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후학들로부터 「이상돈 교수 정년업직집」을 봉정받았다.



▲蘇鎮轍(53년 法大卒·원광대교수·本會理事) = 최근 古代韓·日관계연구 논문 총 「金石文」으로 본 百濟武寧王의 世界-王의 世上은 大王의 世界-」라는 책을 출간.



▲鄭元植(54년 師大卒·前국무총리·本會副會長) = 최근 한국인간개발연구원이 주최하는 창립20주년 기념세미나에서 「21세기 한국의 과제 그리고 인간의 문제」를 주제로 강연.

▲金善弘(55년 工大卒·한국기계공업진흥회 회장·本會副會長) = 여의도 기계회관에서 95년도 제28회 정기총회및 기계공제조합 제10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宋庸植(55년 法大卒·한국지역정책연구소 이사장·本會理事) = 1월 27일 하얏트호텔에서 「세계화와 외교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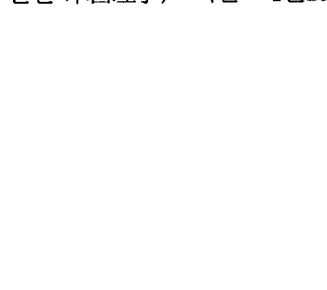
▲朴永淑(55년 齒大卒·을지병원치과과장·本會理事) = 미국 샌프란시스코 동양박물관에서 2월28일부터 4월30일까지 옛 의상 및 보자기 전시회를 개최.



▲申榮均(55년 齒大卒·한국예술평화단 총연합회 회장·本會副會長) = 지난 달 8일 롯데호텔 에메랄드



룸에서 신년교례회를 개최.



▲金鎮佑(56년 法大卒·헌법재판관·本會理事) = 지난 1월25

일 프레스센터에서 회갑기념논총 증정식을 가졌다.



▲金哲洙(56년 法大卒·모교교수·本報論說委員) = 지난 달 24일 동송동 흥사단 강당에서 「한

국법학교육 1백주년-회고와 전망」이란 주제로 학술발표대회를 개최.

▲李載明(57년 工大卒·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本會理事) = 지난 달 21일 교원단체총연합회 세미나실에서 물 절약과 보전에 관한 「가름 심포지엄」을 개최.



▲姜日圭(57년 文理大卒·한국개발리스사장·本會理事) = 2월 24일 호텔롯데에서 同社창립 20주년 기념리셉션을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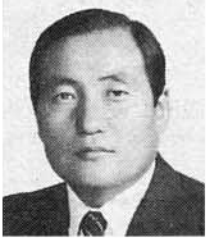


▲柳赫仁(57년 文理大卒·한국종합유선방송위원장·本會理事) = 2월9일 삼성동 한국종합전시장 대서양관에서 「韓·美친선전통음악제」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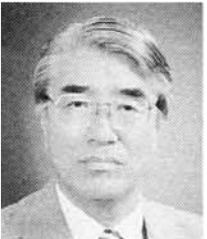
▲金昌達(57년 商大卒·종합기술금융사장·本會理事) = 2월16일부터 18일까지 일본 나가타에서 열린 제5회 동북아시아 경제포럼에 참석했다.

▲張翼龍(58년 工大卒·西光회
장·本會
副會長)
= 지난 1
월 27 일
중앙대학
교에 대
학발전기
금으로 3



억원을 출연했다.

▲申鉉德(58년 法大卒·경희대
산업정보
대학원교
수·本會
理事)=
최근 저
서「교양
환경과
학」(도서
출판 동화기술)을 출간했다.



▲金長淑(58년 藥大卒·정무2
장관·本會理事)= 2월 13일 외
교안보연구원에서 재외공관장
부인 및 외무부본부 간부부인을
대상으로 「세계화와 공직자 부
인의 역할」이란 주제로 강연.

▲鄭根謨(59년 文理大卒·과기
처 장 관)
= 1월 19
일 모교
행정대학
원 에서
국가정책
과정 수
강 생 을
대상으로 「세계화를 위한 과학
기술정책방향」에 관해 특별강
연을 했다.



▲安明弼(59년 法大卒·내무부
민방위본부장·本會理事)= 지난
달 25일 동아대학교에서 「지
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갈등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행정
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韓萬青(59년 醫大卒·서울대
병원장·本會理事)= 2월 2일 서
울대병원 양전자단층촬영기
(PET)센타에서 방사성의약품
생산장비인 「사이클로트론」가
동식 및 장비설명회를 개최.

▲朴載冕(60년 工大卒·현대건
설 회장·本會理事)= 1월 18일
올림픽회관에서 대한수영연맹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롯데
월드 백합홀에서 체육인 1백여
명을 초청, 「수영인의 밤」행사
를 개최.

▲朴世直(60년 文理大卒·국회
의원·本
會理事)
= 지난달
21, 22일
에 호남
지역 의
용수대책
을 수립
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



▲韓完相(60년 文理大卒·한국
방송통신
대 총 장·
本會理
事)= 2월
23일 롯
데호텔에
서 동서
울 로타
리클럽 초청으로 「세계화와 시
민사회」란 주제로 강연했다.



▲尹亨遠(60년 師大卒·한국교
총회장)= 2월 3일 코리아나호
텔에서 정부의 교육정책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교
총 대강당에서 전국 시·군·구
교련회장 결의대회를 가졌다.

▲文哲漢(60년 商大卒·한국무
역학회장·本會理事)= 2월 16일
한국종합전시장에서 「WTO체
제와 신국제무역질서」라는 주
제로 韓·日·美 등의 학자들을
초청,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
다.

▲趙明翰(61년 文理大卒·모교
교수)= 「심리학 연구의 통합적
탐색」이란 주제로 95년도 동
계심리학연구세미나를 2월 17,
18일 양일간 개최했다.

▲玄昭煥(61년 文理大卒·연합
통신사장·本會理事)= 지난달
24일 조선호텔에서 기자간담
회를 갖고, 3월 1일 개국할
YTN의 편성운영 및 준비상황
을 설명.

▲元武鉉(61년 商大卒·효성물
산사장·本會理事)= 「浦鐵(天
津)강제가공유한공사」의 철강
코일센터 착공식에 참석.

▲蔡載億(61년 法大卒·중소기
업진흥공
단이사장
·本會理
事)= 2월
14, 15일
양 일 간
부 산·경
남지부를
방문, 이 지역 중소기업인들과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간담회
를 개최.



▲朴香淑(62년 美大卒·서울여
대 교수)
= 2월 18
일부터 3
월 10일까
지 미국
메리랜드
의 타우
슨주립대
학 ASIAN ARTS CENTER에
서 전담회를 개최한다.



▲韓昇洲(62년 文理大卒·前외
무장관)= 지난달 21일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연구소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았다.

▲韓和甲(63년 文理大卒·국회
의원·本會理事)= 2월 20일 중
앙대 사회개발대학원에서 지방
의회 최고지도과정 수강생들에
게 지방자치제에 관한 특강을
했다.

▲李炯九(63년 文理大卒·노동
부장관·
本會理
事)= 2월
10일 롯
데호텔에
서 기업
체 최고
경영자등
2백여명을 대상으로 「95 노동
정책 방향」에 관해 특강.



▲朴在潤(63년 商大卒·통상산
업부장관
·本會理
事)= 지
난달 23
일 팔레
스호텔에
서 한국
경영·기



술지도사회가 주관하는 신년교
례회에 참석, 「통상산업 정책
의 방향」이란 주제로 특강.

▲鄭東潤(63년 法大卒·한국상
사법학회장·本會理事)= 2월 17
일 고려대 인촌기념관 회의실
에서 동계학술발표회 및 정기총
회를 개최.

▲崔勝夫(64년 文理大卒·노동
부차관·本會理事)= 지난달 16
일 서울 서초구 구민회관에서
열린 한국산업간호협회 주최 제
1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 참
석.

▲姜聲才(64년 法大卒·국회의
원·本會理事)= 지난해 2월 저
서 「金泳三과 운명의 大權」 출
판수익금 5천만원을 월곡장학
회 기금으로 출연했다.

▲金重雄(64년 法大卒·현대경
제사회연
구원장·
本會理
事)= 최
근 사무
실을 종
로구 계
동 140-
2 현대사옥으로 이전.(T.743
-0114)



▲朴英惠(65년 文理大卒·전문
직여성클럽한국연맹회장)= 지
난달 24일 조선호텔에서
「95BPW춤풍의식」을 개최.

▲尹成泰(65년 法大卒·의료보
험연합회장·本會理事)= 지난달
23일 의보련에서 각계 인사 1
백여명을 초청, 의료보험 진료
비청구 및 심사와 지급업무의
전산화에 위한 의료정보망 개
통식을 가졌다.

▲文憲相(65년 商大卒·수출입
은행장)
= 1월 19
일 호텔
신라에서
한국경영
연구원이
개최한
조찬모임
에 참석, 「중소기업의 북한진
출방안」을 주제로 강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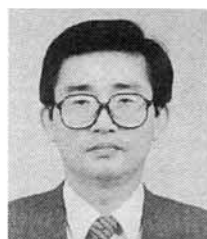
▲柳豪政(67년 法大卒·산업디

자인포장개발원장)= 2월 16일
가리봉동에 있는 시범사업본부
에서 포장실험실 개소식을 가
졌다.

▲楊秀吉(67년 工大卒·교통개
발연구원장·本會理事)= 지난달
23일 신라호텔에서 「교통부문
의 투자 및 운영 효율화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

▲趙洪來(67년 文理大卒·농어
촌진흥공사사장)= 지난달 24
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지
방화시대의 농어촌 종합개발전
략」을 주제로 심포지엄 개최.

▲李漢久(69년 商大卒·대우경
제연구소
장)= 2월
3일 롯
데호텔에
서 한국인
간 개발
원 주 최
로 열린 인
간개발경영자연구회에서 「95
년 한국 경제의 전망과 금융시
장의 변화」에 대해 강연했다.



▲朴三圭(70년 行大院卒·공업
진흥청장
·本會理
事)= 2월
9일 공업
진흥청
대강당에
서 국립
기술원
직원등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
데 개청 22주년 기념식을 가
졌다.



▲安泳娜(84년 美大卒·화가)
= 지난 2
월 20일부
터 3월 2
일까지
갤러리
「서호」에
서 개인
을 개최
했다.



▲李知禧(84년 美大卒·화가)
= 개인전 「생성의 연속체」전이
2월 22일까지 갤러리 이콘에서
열렸다.



여·야협상 명인 李漢東 국회부의장 선거법·WTO동의안등 솜씨 보여



『그 당시는 2학년만 되면 고시준비를 위해 입산했습니다. 그러다 학교시험때 하산하곤 했기 때문에 「빨치산(파르티잔)」이라고 불리곤 했습니다.』

신임 국회부의장으로 취임한 李漢東(58년 法大卒)동문이 취재기자를 맞으며 털어놓은 학창시절의 한 대목이다.

『그 때는 빈약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교수들의 명강의가 유난히 빛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중환교수님은 학생들의 수업참석율을 높이고자 출석부에 사진을 붙여 일일이 확인하는 바람에 대리출석이 전혀 불가능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또 황산덕교수님의 법철학, 신태환교수님의 화폐금융론, 이한기교수님의 국제법등은 특히 잊혀지지 않습니다.』

— 議政생활중 느낀 보람과 아쉬운 점이 있다면...

『먼저 보람은 작년 집권당 원내총무로 여야협의를 이끌어냄으로 통과시킨 선거법과 WTO동의안 처리문제입니다. 전자는 여당의 권리를 모두 던지고 선거를 치르겠다는 가히 혁명적인 법안이고, 후자는 이를 수용함으로써 세계경제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것으로, 이로

써 세계속에서 한국의 위상제고에 다소나마 도움이 됐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반면, 아쉬움은 지난 세월 동안 국회가 본모습인 민의의 전당으로 國利民福을 위한 일보다 때로는 권력투쟁, 갈등의 장소로 비취진 것입니다.』

— 李부의장을 세칭 「一刀先生」이라 하는데...

『그것은 아마 내가 무심결에 한 「나쁜 것들은 단칼에...」라는 말을 기자들이 퍼뜨렸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비록 별로 호로 직접 쓰지는 않지만 막을 생각은 없습니다.』

— 집권당의 핵심당직인 당3역을 비롯해 행정부 주요부서 장관을 역임하는등 화려한 경력을 갖게 된 요체는...

『당3역 특히 원내총무는 3회, 국회운영위원장은 5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자리를 노리고 일한 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당에서 주어진 직분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최선을 다했고 거기에 운도 따랐다고 생각합니다.』

— 향후 계획이나 포부는...

『전에 말했던 아쉬움을 떨치기 위해 동학의 「人乃天」처럼 국리를 하늘처럼 받들며, 국리

민복에 앞장서겠습니다. 또 이제 나이도 나이인만큼 이제까지의 일을 바탕으로 깨끗한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끝으로 동창회와 21만 동문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다른 사립대는 아무리 적은 수라도 그 유대가 대단해서 모두가 동지적 입장으로 지내는

데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총동창회가 회보를 매개로 동문들간의 끈끈한 정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활성화돼야 할 것입니다.』 (嚴)



인본주의 건축가

金 鎮 愛

『건축의 매력은 재창조입니다. 어느 한 분야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를 통합해야 하죠. 여러 분야를 두루 알고 그 위에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 바로 건축이라 생각합니다.』

타임誌가 선정한 미래지도자 1백인중 한 사람으로 작년까지 21세기 위원이라는 거대한 타이틀을 짊어져야 했던 金鎮愛동문의 건축론이다.

78년 홍일점으로 건축학과를 졸업, 지금의 위치에 오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견뎌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정설은 없다고 생각해요. 프로로서의 일, 자기가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면 기회도 오고 또 주위에서도 많이 도와주시죠.』

경쟁과 풍요가 교차하는 21세기, 그 시기를 준비하는 모임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는 金동문은 벌써부터 21세기 형태로 생활을 하고 있다. 4층의 건물에 시어머니와 친척집, 그리고 사무실까지, 각각이 독립성



을 유지하면서 함께 공존하고 있는 이른바 모듬살이의 한 형태로 꾸려가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21세기가 되면 이런 형태의 집뿐만 아니라 더욱 다양한 형태의 집들이 생길 것이라는 金동문의 예측.

『21세기 우리의 주택은 주방이 센터가 될 것입니다. 라이프스타일도 바뀌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 바뀌고, 인간관계 역시 바뀌겠죠. 형태는 다양해지고 양의 시대에서 질의 시대로 전환, 전자기술의 발달로 컴퓨터를 통한 생활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노인들을 위한 집부터 혼자사는 사람들을 위한 집까지 다양한 패키지의 집들도 선보일 것

입니다. 이들 중 거주자가 자신의 기호에 맞게 선택, 자신의 개성과 취미를 살릴 수 있는 형태가 되겠죠.』

자연과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아이들에게 있어서도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디자인 공부가 어려서부터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金동문은 현재 일본에서 열릴 세계 도시박람회를 준비하고 있다.

『도시박람회는 처음 있는 것이라 저도 굉장히 기대되고요. 그리고 곧 있으면 예세이집도 발간될 예정이구요. 일하는 삶, 프로로서의 가정생활, 남녀간의 갈등등을 적었는데 남성들도 함께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단지 아름다운 건축만이 아닌 좋은 건축을 추구한다는 金鎮愛동문. 상대적인 아름다움을 존중하고 그 속에서 공유할 수 있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 좋은 집, 사람의 눈높이에서 이루어지는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좋은 집을 짓기 위해 한시도 쉬지 않고 노력한다는 金동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좀더 나은 건축환경을 위한 사회의 적극적인 관심인 듯하다. (泳)



서울대 가족

우리집 아이들

우리는 부녀 동창생

金星銖(74년 齒大卒)치과의원장



좌로부터 차녀(상아), 장녀(진아·고고미술학과 2년), 필자, 부인, 장남(재범)

서울대 합격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여기 저기 연락하고 축하전화 받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우리 큰 딸이 벌써 2학년이 되었다.

생각해 보면 큰 애가 고3이던 갑술년 정월초에 서울대 캠퍼스를 아이들에게 구경시킨 일이 있다. 모교에 재직하는 친구와도 모처럼 만나 신년 인사도 나누고 그 친구의 안내로 넓은 서울대 캠퍼스를 두루 두루 돌아보며 아이들(2녀1남)에게 더 높은 理想과 포부를 키울 수 있도록 많은 덕담도 들려주었다. 서울대 정문에서 다시 이 문을 들어서리라 결심하는 아이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우리 가족은 갑술년 정월 연휴를 보냈다.

그 때의 염원했던 일이 큰 딸아이의 합격으로 첫 결실을

맺어 우리 부녀간의 서울대 동문이 되었고 입학식에 참석을 했다. 내가 다니던 동송동 캠퍼스(문리대 치의예과 67학번)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여서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였다. 나는 그 때 부산에서 혼자 서울에 와 입학식을 했고 짜장면 한 그릇 먹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것도 얼마나 사치였던가. 그리고 그때, 부른게 아니라 들었던 교가는 최근 동창회에서 교가 카세트 테이프를 주기 전까지는 흥얼거릴 수도 없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정확하게 금방 부른다.

우리가 차를 타고 나들이를 갈 때면 의례껏 서울대 교가를 제창하곤 했는데 딸아이는 입학식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힘차고 자신있게 교가를 부를 수 있었음을 만족해 하고 즐거워

했다. 아빠가 서울대 동창이어서 가능한 일이었기에 더욱 신이 났으리라 짐작이 된다.

이제 딸아이는 고등학교와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자신의 학업과 써클 활동을 통하여 지식과 지혜를 쌓고, 서울대인으로서 결함이 없는 올곧은 나무로 자라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음을 본다. 무척 대견스럽다.

모든 서울대생이 힘든 관문을 뚫고 들어 온 자부심과 긍지가 대단하겠지만 선배로서 하고 싶은 말은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으로 만족하지 말고 세계적인 대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는 것이다. 또 우리 동문들도 2천년대 세계20위 목표로 나아가는 학교 발전을 위해 일익을 담당하는 자세로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하겠다.

추억의 앨범

부산 가교사 시절 추억담아 총칼에도 굴하지 않던 기백

姜聲穆(56년 法大卒) 관악출판사 대표

지금 한 장의 사진을 보고 있다. 「癸巳元旦」이라고 했으니, 계사년이면 서기로 1953년, 그러니까 43년전의 사진인 셈이다. 모두들, 입을 꼭 다문 굳은 표정들이 재미있다. 어떻게 해서 사진을 찍게 되었는지 그 자세한 경위는 기억나지 않지만, 추측컨대 아마 대학 1학년때 가까운 친구끼리 모여, 당시 부산시장이시던 鄭昌淳형의 부친에게 세배차 들렀다가 찍은 것이 아닌가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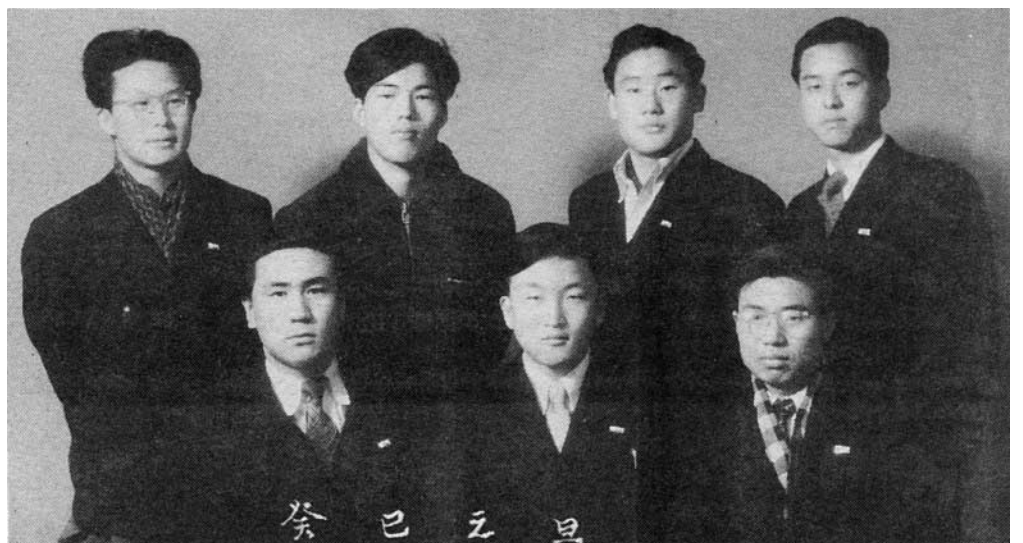
우리가 대학에 입학한 것은, 아직 6·25의 포성이 멎지 않았던 1952년의 이른 봄, 함도 부산의 九德山 기슭에 자리한 허름한 목조 가교사에서였다. FIAT JUSTITIA RUAT CAERUM, 교문 위 아치형 철망에 수놓여졌던 글귀다. 그 땐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다. 「하늘이 무너져도 正義는 살려라!」는 뜻의 교훈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한참 후의 일이다.

뒷날, 4·19, 5·16 그리고 12·12로 이어진 浮沈하는 역사현장의 험난한 격랑에 휩쓸리면서도 방향 감각을 잃지 않고 좌초하는 일 없이, 榮辱이 엇갈리는 그 엄청난 세월의 무게를 그런대로 감당해 나왔던 것은, 이 교훈이 때로는 나침반으로, 때로는 등대로, 그리고 말없는 채찍질로, 우리를 격려

해 준 덕분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부산시절을 회상하면, 잊혀지지 않는 일이 하나 있다. 1학년 2학기 쯤으로 기억된다. 九德山 정상을 공략하라는 배속장교의 명을 받고, 전교생이 목총을 「앞에 총」 자세로, 정상을 향하여 기어오르고 있었다. 숨을 헐떡이며 거의 정상에 다다랐을 때, 누구의 명령인지 모르지만 하산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모두들 얼씨구나 하고 신나게 내려오는데 중턱쯤 내려왔을 때, 널찍한 빈터에 여럿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다. 거기서 즉석 야외학생총회가 열린 것이다. 학생운영위원장인 韓基泰선배(3학년)의 일장연설, 高試준비에 열중해야 할 이 시간에 과격한 군사훈련으로 시간을 낭비할 수 없으니, 군사훈련은 이쯤에서 중단하자는 뜻의 열변이었다. 모두들 박수로 찬동하고선 하산, 가교사에 다시 모여 학생총회가 속개되었다.

일부 반대하는 자도 있고 하여, 한창 찬반토론에 열을 올리고 있을 때였다. 느닷없이 노기등등, 헐떡이며 달려온 서울대 배속장교 총단장인 강대령, 완전무장한 그의 손에는 일본도까지 쥐어져 있었다. 일본도를 교탁 위에 「탕」하고 놓더니 다짜고짜로 「이놈들, 지



뒷줄 좌로부터 시계방향으로 金水根동문, 필자, 吳淵根변호사, 金泰卿변호사, 金元圭동문, 沈載甲인하공전교수(재학시 서울대총학생운영위원장), 鄭昌淳한일리스회장.

금이 어느때든 감히 이따위짓을 하는거야, 몽땅 쏘아버릴테다!」하면서, 정말 권총을 빼들고 휘둘러댔다. 마구 쏘아댈 것만 같은 험악한 분위기였다. 모두들, 숨을 죽이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조금 후에 침묵을 깨고 손을 번쩍들고 일어서 친구가 있었다. 초년병인 1학년 鄭萬榮형이었다. 너무하지 않느냐, 아무리 戰時下라지만, 여긴 학교, 학생의 본분인 공부를 하겠다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며 대들었다.

화가 머리 끝까지 치민 강대령, 당장 나오라고 호통을 치더니, 「너 몇학년이야, 이 놈을 당장 일선에 배치시켜!」 옆에

서 났을 앓고 멍하니 서 있던 법대 배속장교에게 명령, 그리고 일본도를 싹 빼들더니 당장 무슨 변이라도 일으킬 것처럼 설쳐, 당지는 물론 보는 이로 하여금 간담을 서늘케 했다.

40여년이 지나 지금에 와선 추억담으로 담담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때의 그 살벌했던 분위기를 회상하면, 잊혀지지 않는 악몽처럼 소름이 끼친다. 하긴 전사하의 군사훈련을 거부했으니 당시로선 중대사건이 아닐 수 없었다. 劉基天학장을 비롯, 지금은 유명을 달리하신 金曾漢교수(학생과장), 黃山德교수(교무과장)등 교수 여러분의 적극적인 중재노력으로

로 잘 수습된 것으로 알지만, 주동자적인 학생운영위원장 韓基泰선배께선 한동안 상당한 곤욕을 치렀던 것으로 알고 있다.

「추억의 앨범」欄은 동문들께서 소장하고 계신 빛바랜 사진에 얹힌 에피소드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사진과 함께 기사를 보내주시면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용 있으시길 바랍니다.

편집부: 703-5954~6



어느 고혈압환자의 한숨



李香蓮(73년 保大院卒)경희대교수

『XX 씨! 치료요법을 열심히 하지 않으셨군요. 음식주의, 운동, 약물섭취를 가르쳐 드렸을 텐데요. 잘 하셨으면 이렇게까지는 안되셨을텐데...』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눈물을 흘리고 한숨을 쉬며 후회한다.

이는 고혈압의 합병증으로 반신불수가 되거나 의사소통이 어렵게 된 많은 환자들의 이야기이다.

나는 학생들과 함께 임상지도를 나갈 때면 환자들을 교육시키는 시간을 자주 갖는다. 그곳에서 반신불수가 되어 말도 잘 못하는 고혈압으로 인한 뇌졸중 환자들을 보곤 한다. 그때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이런 고통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성찰해 보고 스스로의 소명감을 느끼곤 했다.

의사가 치료를 위한 처방을 한다면, 간호사는 환자가 이를 잘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고혈압중 특히 본태성 고혈압은 완치가 힘든 질병이다. 따라서 합병증에 의한 뇌졸중 등의 치명적 질환의 가능성도 매우 높으며 이 때문에 병원에서조차 자가간호(self care)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처음 얼마간은 열심히 따르던 환자들이 요법을 끊었다고 해서 즉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이 병의 특성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어떻게 하면 고혈압 환자가 건강행위 이행을 좀더 잘 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는 내가 다니던 성당의 협조를 얻어 연구를 시작했다.

일상 생활을 하고 있는 비슷한 조건의 상태인 고혈압 환자를 두 군으로 각 34명씩 선정한 후에 각각 한시간에 걸쳐 조절요법의 중요성과 후유증을 강조한 교육을 시행했다. 교육후 한달 만에 실시한 검사에서는 두 군 모두 혈압과 건강행위 이행상태(식이, 운동, 약물섭취)에서 우수한 결과가 나왔다.

두 군의 결과는 거의 비슷했고 이는 교육의 효과로 보였다.

더 나아가, 그 중 한 군에게는 그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건강 계약이라는 실험적 조치를 하였다. 그것은 건강 관리자인 나와 대상자간에 일정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도달을 위하여 대상자는 식이, 운동, 약물요법으로 대표되는 자기간호를, 나는 한달마다의 지속적인 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다.

대상자들은 잘 따라 주었고, 나는 성취도에 따른 칭찬과 독려로 그들을 도왔다.

그 결과는 6개월 후에 나타났다.

교육시점에서 6개월 후, 양 군을 각각 검사해 본 결과, 계약을 실행했던 군이 그렇지 않은 군보다 우월한 결과를 보였다.

즉 실험군의 경우 자기간호 이행도 잘 했으며 혈압도 거의 정상상을 유지하는 성과가 나타난 것이다.

이 결과는 주기적인 관심과 관리가 본태성 고혈압의 후유증 예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이 연구만으로 일반화시키기에 는 무리가 있다. 특히 그 결과가 건강 계약의 효과인지, 주기적 관리에 의한 강화의 효과인지가 명백하지 않다는 약점도 있다. 그러나 관심과 관리의 중요성은 실증되었다고 생각된다.

이에 관한 후속 연구를 계속하고자 했으나 아직 이루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위 내용은 지면 관계와 글의 성격상 피상적인 결과를 설명하였음을 밝힌다.

그러나 그 결과만을 놓고 볼 때 전

강계약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며, 이러한 결과를 임상에서 활용하기 위해 더 많은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고 느껴진다.

연구에 대한 일정과 활용이 학문이 발전하는 길이다.

지금도 충분히 여생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많은 고혈압 환자들이 관리소홀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마음이 무겁다.

부디 이 글이 고혈압의 사후 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우는데 도움이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내가 무섭게 던진 한마디

입사 13년만에 차장 승진 대상 5배수에 뽑혀서 필기시험에 합격, 선발 정원 2배수에 들어 면접을 받게 된 것이 86년, 지금부터 9년전의 일이다.

넓은 면접시험장에 당시 사장을 비롯 5명의 임원들이 엄숙하게 앉아 있었다.

소속과 이름을 대고 면접자 자리에 앉자마자 질문이 떨어졌다.

『결혼을 했구만, 남편은 어떤 일을 하나?』

『교편을 잡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어됩니다』

그러자 떨어진 다음 질문.

『그럼 언제까지 다닐건가?』

방송발전에 관한 좋은 방안같은 상식적 질문을 기대했었는데 이진 관두라는 말이야 뭐야, 순간적으로 열을 왕창 받고는 드라마틱하게 약간의 포즈를 둔 다음 속사포같이 대답을 던졌다.

『KBS에 뼈를 묻겠습니다』

순간 고사장은 정적이었고 곧 뒸오니 나가라는 말이 있었다.

사실 프로듀서를 평생직업으로 생각하고 탄 눈을 팔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朴賢洵(73년 家政大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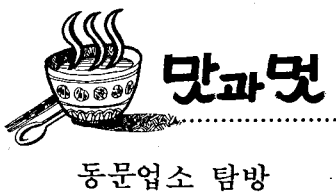
KBS제2라디오차장

그렇지만 여유있게 일에 대한 애정을 담담하게 표현하면서 이러한 평생 직업에 대한 마음의 자세를 밝히면 충분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가슴이 뚫어 넘치는 시절- 젊었으니까.

매년 가을마다 차장승진 시험이 있고 봄 여름이면 있는 인사철이 아니더라도 20년이 넘는 프로듀서 이전의 한 조직인으로서 부딪치는 순간 순간마다, 염증을 느낄 때마다, 다른 유혹을 느낄 때마다 문득 내가 무섭게 던진 한마디를 생각한다.

그리고 나의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 스스로를 채찍질하곤 한다.



바우네 떡갈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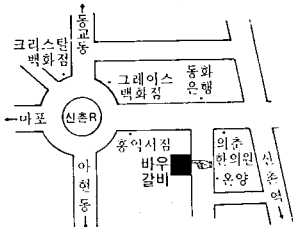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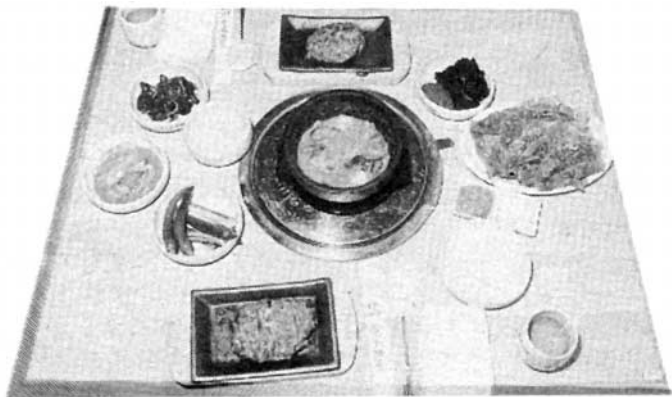
(02)393-9243



신촌 대학가에 위치한 「바우네 떡갈비」집은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조교나 학생, 멀리서 찾아온 미식가들로 항상 붐빈다. 완벽한 환풍장치, 전통한옥을 연상시키는 독특한 실내 분위기와 깔끔한 맛, 게다가 친절하고 인심 좋은 인텔리 주인 이준미는 이 집의 매력 포인트. 바로 趙行淑(51년 法大入)동문이다. 듬직한 손주의 별명을 따서 지은 「바우」라는 이름은 「변함 없는 맛과 정성을 제공한다」

는 경영철학이 담겨있다. 한우고기만을 고집하는 이 집의 대표적 메뉴인 「떡갈비」는 떡을 이용해 만든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은 갈비살을 다지고 양념해 고기떡을 만들어 철판에 구운 것을 말한다. 가격은 1인분에 8천원으로, 공기밥과 알큰하고 시원한 맛이 일품인 장국이 원하는 만큼 제공된다. 소문난 맛의 비결은 양념과 고기의 적절한 조화라는 데, 趙동문은 「법학과」의 유일

한 여학생이라 아낌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도 남자친구들의 홍보 덕을 많이 보고 있다며 친구자랑으로 돌린다. 그밖의 메뉴로는 냉면, 갈비, 생등심, 낫지볶음 등이 있으며 1, 2만원의 저렴한 가격에 비해 푸짐하고 뛰어난 맛 때문에 단체회식 손님도 많은 편이다. 주차장은 그레이스백화점 놀이터 뒤에 완비돼 있다. (志)



-알림-
「맛과 멋」은 同門여러분이 경영하고 있는 업소를 탐방하여 소개하는欄입니다. 동문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곳이 있으면 저희 편집부로 연락해 주십시오.
T. 703-5954~6
F. 703-0755

문화단신

新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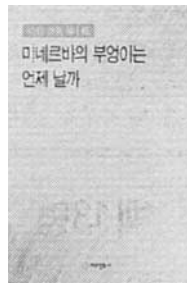
■ 어린이와 대화는 이렇게 하세요 ...黃瓊植·劉漢鍾 共譯



저자로 날 드 F. 리드는 이 책에서 아이들과 더 나은 대화를 하고 그들과 의사소통이 원활해지려면 부모들은 먼저 자기를 둘러싼 환경을 아이 스스로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黃瓊植(70년 文理大卒)동문은 모교에서 철학을 강의하고 있으며 그동안 다수의 어린이 철학소설 및 동화등을 번역해왔고 劉漢鍾(87년 師範大卒)동문은 반포여중에서 국어교사로 재직해왔다. <샘터刊> 값4천원

■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언제 날까 ...朴奇烈 著



「젊은 사관후보생의 슬픈 연가」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왔던 朴奇烈(58년 師範大卒)동문의 두번째 간행물이자 첫 詩集.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언제 날까

차동문은 책머리에서 로마 신화에 나오는 미네르바여신(지혜·기예·전쟁의 여신)의 부엉이는 어둠이 짙게 깔릴 때 비상한다며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그 시기는 모든 지혜가 발동하고 일의 성패가 이루어질 때, 바로 그 어떤 일의 가닥이 잡히고 열매가 맺는 결실기라고 말하고 있다.

5부 53편의 시로 구성된 이 책을 통해 松岩이라는 차동문의 아호에 걸맞게 언제나 변색하지 않고 변할 줄 모르는 그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차동문은 현재 경기도 교육청 율곡고원연수원 교육연구사로 재직중이다. <미래문화사刊> 값3천원

■ 신4극 체제하의 경제전략 ...朴泰榮 著



21세기 선진국 진입을 대비하고자 노력한 흔적이 물씬 풍기는 朴泰榮(66년 商大卒·국회의원)동문의 저작.

이 책은 총8장에 걸쳐 한국 경제의 현실을 정리하고 국제 경쟁력의 현주소를 다루고 있다.

활발한 의정활동의 경험, 기업경영에 참여해 익힌 실물 경제에 대한 감각과 우리 국토의 편중적 발전에 대한 비판적 평가속에서 그 싹을 키워왔던 차동문은 이 책에서 21세기 중국의 부상을 전망하고 이에 대비해 環黃海經濟圈을 구축, 새로운 한국경제의 도약을 준비하자고 역설하고 있다. <동문사刊> 값8천원

(정리=安興燮 기자)

모교소식

제49회 학위수여식 총5천8백76명 졸업



졸업식사상 동창회장으로는 최초로 金在淳회장이 축사를 했다.

모교(총장 金鍾云)는 지난달 25일 관악캠퍼스 종합운동장에서 제49회 학위수여식을 거행했다.

이 자리에는 李門宰전임총장, 金鍾云총장을 비롯한 보직교수와 모교 관계자, 본회 金在淳회장, 鄭宗澤상임부회장, 馬景錫부회장, 李世亞사무처장 등 각계인사가 다수 참석해 졸업생들을 축하했다. (총장 식사 및 회장 축사 3면 게재)

崔明교무처장은 학사보고에서 『서울대는 우리나라 교육과 연구의 산실로서 그동안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강조했다. 보고에 따르면 이날 학위수여자는 총5천8백76명으로 학사 3천6백46명, 석사 1천8백20명, 박사 4백10명이다. 이로써 서울대 개교 이래 총학위수여자는 18만2천94명으로 늘었으며, 학사 13만5천5백65명, 석사 3만8천6백49명, 박사 7천8백8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졸업자를 대표한 김민정(박사), 손인자(석사), 이문주(학사)양등에 대한 학위수여가 있는 후, 음대 박인수교수는 「희망의 나라로」란 노래를 열창, 축하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이날 단과대별 수석졸

업생에 대한 총장상과 동창회장상 시상도 거행됐는데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인문대: 최경희-강진호 △사회대: 이윤정-나은경 △자연대: 이영민-서진욱 △가정대: 성미영-박가영 △간호대: 박정수-김윤정 △경영대: 천상훈-이정훈 △공대: 김도완-차두환 △농생대: 박찬웅-서보성 △미대: 이문주-조혜정 △법대: 천경훈-김진오 △사범대: 이은영-오직숙 △수의대: 박수진-양재만 △약대: 유지형-임경민 △음대: 손민정-조성은 △의대: 김강모-김성혜 △치대: 최미리-윤필영

동창회 총회원 21만4천1백13명

단과대학(원)별 회원현황

(단위 명)

구 분	2월졸업	총 회원
인문대학	271	6,150
사회과학대학	358	7,771
자연과학대학	276	6,208
가정대학	104	2,451
간호대학	71	2,550
경영대학	197	3,517
공과대학	706	27,765
농과대학	423	15,251
문리과대학	-	9,731
미술대학	117	3,469
법과대학	213	12,311
사범대학	350	20,066
상과대학	-	6,723
수의과대학	45	1,556
약학대학	78	4,990
음악대학	147	5,099
의과대학	192	8,549
치과대학	98	4,695
대학원	2,079	43,485
경영대학원	-	701
교육대학원	-	653
보건대학원	52	1,955
사범대학원	-	508
신문대학원	-	264
행정대학원	49	3,144
환경대학원	50	1,213
소 계	5,876	200,775
준 회원	-	13,338
총 계	-	214,113

모교 95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이 지난 25일 거행돼 동창회는 5천8백76명(학사 3천6백46명, 석사 1천8백20명, 박사 4백10명)을 신입회원으로 맞이했다.

이로써 동창회 총회원수는 21만4천1백13명(준회원포함)으로 늘어났다. 각 단과대학(원)별 회원수는 별표와 같다. (명단 28면 참조)

「장기발전계획」확정

모교는 지난 16일 2020년까지 세계 20위권안에 드는 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교수의 획기적인 증원, 독자적인 입학제도 운영, 국제교류의 활성화, 법대 의대 치대 사대 등 일부 단과대학의 대학원과정으로의 전환, 제2캠퍼스조성 등을 골자로한 「장기발전계획」안을 확정했다.

이날 발표된 「서울대 2000년대 미래상」자료에 따르면 모교는 학교법을 제정, 교육부의 통제를 벗어나 자율성이 대폭 보장되는 국무총리 산하의 특수법인체로 전환해 독자적인

학사와 인사 재정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토대위에서 고교내신 성적 및 수학능력시험, 본고사 이외에 고교추천서와 과외활동 실적등의 자료를 활용한 독자적인 학생선발제도를 확립할 방침이다.

또 미국 LA와 중국 연변에 해외분교를 설치하고 국제교류를 전담할 국제처(가칭)를 신설해 교수 및 학생들의 국제교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農·獸醫大 관악이전

캠퍼스계획위원회(위원장 金商周)는 지난 13일 수원의 농업생명과학대와 수의대를 관악캠퍼스내 자연대운동장옆 現차량기지 자리와 체육관옆에 건설중인 소동물병원 근처로 각각 옮기기로 확정했다.

이에따라 농생대는 4천5백평 규모의 차량기지 자리에 총 9백80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하3층·지상6층, 연건평 2만5천6백50평의 건물을 지어 이전키로 했다.

수의대는 정문 동쪽 체육관 옆 3천5백5평 부지에 지하1층, 지상4층 단독건물을 건립키로 했다. (變)

李桓교수등 18명 정년퇴임 金鍾云총장 이임식도 열려

지난 2월 28일 교수 18명의 정년퇴임식이 문화관에서 열렸다. 이번에 퇴임한 교수명단은 다음과 같다.

李桓교수(불문학), 金俊鎬교수(생물학), 李禹永교수(화학), 尹定燮교수(토목공학), 玄炳九교수(자원공학), 黃迪仁교수(사법학), 丘仁煥교수(국어교육), 李孟成교수(영어교육), 權宗國교수(수의학), 林昌亨교수(수의학), 金信根교수(제약학), 康芸京교수(기악), 李基媛교수(기악), 李南洙교수(작곡), 金洙泰교수(의학), 金昇元교수(의학), 金祐謙교수(의학), 金周完교수(의학)(프로필 다음호에 게재)

한편 정년퇴임식과는 별도로 제19대 金鍾云총장 이임식이 이날 오후 4시 金淑禧교육부장관, 趙完圭 前총장, 金商周부총장, 金哲洙교수를 비롯 보직교수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金淑禧교육부장관은 金鍾云총장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傳授했다.

金鍾云총장은 지난 91년도에 총장직을 수행하기 위해 교수직을 사직한 바 있으며 그동안 교육공무원의 자격으로 봉직해왔다.

사회과학대학연구동 개관 20년만에 통합건물 가져

사회과학대학(학장 金世源)은 지난달 21일 金榮國(본보 논설위원)교수, 慎鍾慶교수등 60여명의 각계 인사와 참석한 가운데 사회과학대학 연구棟 준공 및 개관식을 개최했다.

지하1층 지상6층, 1백26평의 이 건물에는 학부 10개학과, 10개 연구소, 19개 강의실을 비롯해 교수연구실, 도서관, 전산실등이 마련됐다. 이로써 20여년 숙원이었던 사회과학의 통합건물소유가 가능해졌다.

金學장은 인사말에서 『사회과학대학 2관은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의 결실』이라고 강조하고 『한자리에서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게 됐으니 앞으로 공동연구를 더욱 활성화해서 국제화시대에 발맞춰 나가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金鍾云총장은 치사를 통해 『그동안 이공계대학에 비해 인문 사회계열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었는데 오늘 사회대 연구동의 준공을 맞아 학문간의 균형발전과 사회과학발전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고 말하고, 이번 공사의 현장소장을 맡았던 (주)현대산업개발의 김순태 이사에게 감사패를 증정하고 노고를 치하했다.

도서관학술정보시스템 가동 우리 기술만으로 이룬 쾌거

중앙도서관(관장 朴孝根)은 최신학술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사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1990년부터 2001년까지 장기계획으로 추진해온 도서관 전산화사업의 1단계로 학술정보시스템(SOLARS)을 개발, 지난달 21일 첫 가동식을 가졌다.

총11억의 경비가 소요된 이 시스템은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됐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4월말경에는 각 학과에서도 검색이 가능하게 된다. 향후 전국대학도서관망을 구축해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최신정보를 얻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차관장은 경과보고에서 『50년간 사용했던 카드목록합대신 그 자리에 컴퓨터가 들어선 모습을 보니 변화를 실감할 수 있다』며 『도서관 전산화의 첫걸음을 딛는 오늘로 학술정보를 24시간 어디서나 검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金鍾云총장은 『임기가 며칠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그동안 중점적으로 지원했던 사업이 결실을 보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하고 『이 사업은 서울대 하나만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내대학도서관 전산화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번 사업을 실질적으로 이끈 한국컴퓨터를 비롯해 도서관 관계자들에게 표창장 수여가 있었으며, 기념테이프 절단에 이어 試演이 있었다.

특파원 25時

한국인 필리핀서 피랍

홍콩 특파원 시절—

모처럼 여유가 있다 싶어서 혼자서 무작정 市외곽으로 빠져나와 있던 어느날 토요일 오후, 허리춤에 꽂혀 있던 「삐삐」가 갑자기 요동을 쳤다. 서울本社 외신부, 심상치 않은 일임을 직감했다.

『鄭선배, 필리핀에서 한국인 근로자가 납치됐는데, 즉각 현장으로 뛰십시오. 밤9시 뉴스에 현장을 위성으로 물리라는 지시입니다』

시계를 들여다보니 기가 찰 노릇이었다.

마닐라行 비행기 좌석이 남아 있는지가 우선 문제고 서울시각 밤9시까지 현장에 도착할 수 있을지 조차도 계산이 나오질 않았기 때문이었다. 동료카메라 특파원을 수배해야하고 출장여비도 문제였다. 지갑 속에는 세 사람分 마닐라 편도 항공료 정도가 고작이었다.

마침 집에 돌아가 있던 카메라 특파원은 즉각 연락이 닿았다. 사무실로 나가 ENG카메라등 장비를 챙겨서 공항으로 나오게 하고는 우리 집으로 급히 전화 다이얼을 돌렸다.

천만다행, 그 女도 집에 있었다.

『여보 마닐라 출장이야. 며칠이 될지는 나도 몰라. 옷가방하고 돈 있는 대로 챙겨서 즉시 공항으로 나와』

급하다는 당부를 끝으로 수화기를 놓고는 마치 용수철처럼 공항으로 나는 뿔겨져 나갔다.

홍콩 카이탁공항—

그날 마닐라行 마지막便 출발시각 15분전이었다. 동료카메라 특파원은 눈에 띄었지만 정작 「돈 보따리」는 보이지 않았다. 홍콩주재 국내 동료 특파원등도 보이지 않았다. 특종과 낙종의 갈림길이었다. 머뭇거리수가 없었다. 지갑을 털어 두 장의 표를 사들고는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비행기 속으로 뛰어 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동료 특파원들이 야릇한 웃음으로 우리 둘을 맞아 주었다. 그러나 정작 KBS 상대放送社의 특파원은 보이지 않았다.

마닐라에서 먹고 잘 일이 막연했지만 상대사가 원천적으로 「물」을 먹었다는 會心의 미소도 잠시—



鄭書九 (69년 文理大卒) KBS진주방송국장

『鄭兄! 가방받아. 좀 전해달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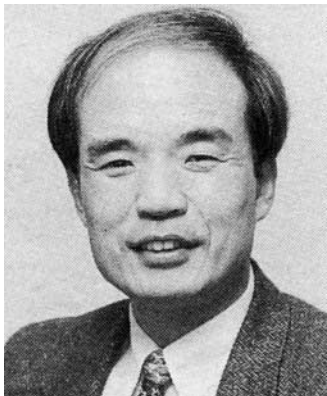
특종과 낙종을 함께 면했다는 절반의 승부에 자위하면서 그제야 후~ 한숨을 내뿜을 수가 있었다.

결국 서울과 마닐라 사이 時差의 마술 덕분에 9시 뉴스 위성대담의 임무를 완수했지만 참으로 피를 말리는 순간들이었다.

그래도 지구는 돌듯이, 放送시간을 대지 못하는 펑크사고는 없다. 오직 神의 가호이려나?

김일성 피살 오보

「說」字로 특종상받아



李揆振 (76년 社會大卒) 중앙일보전국부장

참으로 이상한 특종이었다.

5개월간, 그러니까 富川鎔 성고문 사건, 建國大 검거농성사건등 굵직한 사건들이 연이어 터져 나라안이 온통 어수선했던 86년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정확히(지금 기록을 찾아보니) 86년 11월17일 오전 中央日報 편집국은 온통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국방부로부터 北傀(그때는 北韓을 이렇게 호칭했다)金日成이 총맞아 죽었다는 초 긴급 뉴스가 들어온 것이었다.

세계적인 뉴스에 모두들 바쁘게 돌아갔다. 청와대를 비롯한 전 출입처는 물론 워싱턴·東京등 세계 각지에. 나가 있는 특파원들에게 예비상이 걸렸다.

당시 외신부(지금은 국제부)에 근무하고 있던 나는 텔레타이프에 딱 붙어 앉아 세계 각지에서 들어 오는 외신뉴스를 눈이 뚫어져라 지켜보았다. 특히 金日成사망소식이 들어올만한 모스크바·北京·워싱턴·東京·홍콩發 기사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체크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딱 떨어지게 金日成이 죽었다는 뉴스는 들어오지 않았다. 다만 서울發 기사로 한국의 국

방부가 발표한 내용만 들어 올 뿐이었다.

오히려 평양의 상황은 金日成이 죽었음을 시사하는 아무런 조짐이 없다는 평양의 서방소식통이 전하는 뉴스가 홍콩으로부터 들어 오고 있었다. 일단 이 같은 외신뉴스는 국장단에 전달됐다.

국장단은 결국 국방부의 발표를 바탕으로 1면 머리에 「金日成 被殺說」 톤단 컷제목을 뉴스를 가관에 실어 내보냈다. 다른 석간신문들도 마찬가지였다. 어떤 신문은 아예 「金日成 被殺」의 단정적 제목을 달았다.

문제는 다음에 일어났다. 기사제목에서 「說」자를 빼느냐 마느냐가 3판 마감시간이 다가오면서 쟁점으로 대두된 것이었다. 의견이 분분했다.

편집국장의 외신확인 요구가 빗발쳤다. 그때 나는 「공산권의 관례대로라면 소련 공산당의 키톨렌스(애도)가 나와야 한다. 이 상태대로라면 金日成 죽음을 믿을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결국 내 주장이 받아들여져 「說」자가 제목에 그대로 살아 나갔다.

金日成이 죽지 않고 살아 있었음은 다음날 북한 중앙통신이 「金日成동지가 평양공항에서 풍고인민공화국 국가주석 바트문호동지를 따듯이 영접했다」고 보도함으로써 확인됐다.

당시 언론들이 오보하도록 만든 이 사건은 결국 국방장관을 물러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정부의 정보수집 및 관리능력이 얼마나 허술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나한테는 이 사건이 「說」자 한 字로 인해 특종상을 타는 행운을 안겨 주었다. 그러나 곰곰히 생각해 보면 치열하게 경쟁하는 취재현장에서 뛰지도 않고 더우기 기사 한 줄 쓰지 않고 상을 받게 해 준 「이상한 특종」이었다.

검찰청의 연막작전

끝까지 헤쳐 얻은 개가



金秀鳳 (78년 法大卒) TBC뉴스제작팀장

문화방송 기자로 출발해 언론계에 발을 내디딘지 올해로 14년째 접어들면서 크고 작은 특종을 건재해기는 했지만 화려한 부용담을 펼치기에는 아직 부족함이 많은 입장이라 그간의 기자생활중 동문의 도움으로 특종을 얻어낸 에피소드 한가지만 소개하고자 한다.

기자초년병 시절인 85년 6월쯤으로 기억된다. 법조 2진기자로 매일 서소문 검찰청사 주위를 헛바퀴 돌듯 바삐 뛰어다니던 시절이다. 당시 모 사학재단의 K모 이사장이 거액의 학교자금을 횡령하고 이 돈을 해외에 빼돌린 혐의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내사를 받고 있었다.

명예훼손의 우려도 있고 해서 보도는 하지 못하고 검찰이 당사자를 구속하느냐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져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어느때나 마찬가지로 새벽점점을 위해 서울형사지방법원 영장계에 들러 간밤의 영장 발급대장을 살피던중 두 칸이 비어있음을 발견했다. 영장계 직원에게 물어보니 실수로 그랬다는 대답을 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니 영장발급번호는 주어져 있는데 인적사항은 기록돼 있지

않은 것이었다. 뭔가 감추는게 있다는 느낌이 오면서 직감적으로 K모 이사장 사건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즉시 자리를 옮겨 당직판사에게 전화를 했지만 「특별한 일도 없는 새벽잠만 깨운다」는 불멘 소리만 들었다. 그러나 뭔가 있다는 생각은 떨칠 수가 없었고 누구한테 확인을 구해야할지 궁리를 계속했다. K모 이사장 사건을 맡고 있는 중수부 4과장은 철저한 오리발형으로 도움이 될 것같지 않고 고민끝에 사건보고 계선 주변에 있는 모 동문선배에게 매달려 보기로 했다.

『새벽잠을 깨워서 죄송합니다만 K 이사장이 간밤에 구속됐지요』

『왜 그런 생각을 하지?』

『영장대장을 살펴보니 두 칸이 비워져 있었습니까』

『그게 그 사람이 구속됐다는 증거가 되나?』

『그러면 다른 사건이 또 있습니까?』
『...부지런하니까 하나 챙기는 구만』

마지막 말을 듣는 순간이 6시20분쯤이었고 아침 7시 TV뉴스에는 「K모 이사장 거액 횡령과 외환도피 혐의로 구속」 리포트가 머리기사로 나가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자 『열심히 하면 하늘도 도운다고 하지 않는가』하는 그 선배의 말씀은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다.

—알림—

동문 여러분이 참여하고 계신 동호모임이나 기과별 모임에 대한 원고와 사진을 받고 있습니다.

행사내용등을 적어 편집부 앞으로 보내주시거나 계보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EL 703-5954~6

FAX 703-0755

